



www.maggun.com

2016. 08 vol. 65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Home Sweet Home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 군산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김선진** · 동네미용실 **송미정** 원장 · 무녀도를가다

· 군산문화관광해설사회 **편정수** 회장 · **수시탐포럼** 군산관광토론회 · 야자대신 저녁밥하는 고딩아들

· 영화시장 신바람사진전 · **신석호** 사진작가 · 한스카케어 **한창희** 대표 · 군산시립도서관

시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박물관로컬푸드 직매장

(우천시 휴장)

토요 직거래 장터 개장 2016.5.5 ~ 2016.10.30



철저한 품질검사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갖춘 400여 품목 지역 농수산물 판매
(각종 채소류, 버섯류, 나물류, 장류, 계란, 생선, 우유, 정육 및 제빵, 간식거리 등)

추석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 시간여행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9.14~16) (9.30~10.2)

하절기 08:00~20:00

동절기 08:30~19:00



군산시 해망로 224번지(근대역사박물관 옆)

063)443-1115~6

군산 야행

夜行

文化財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2016. 8. 13(토) ~ 8. 14(일)

18:00~23:00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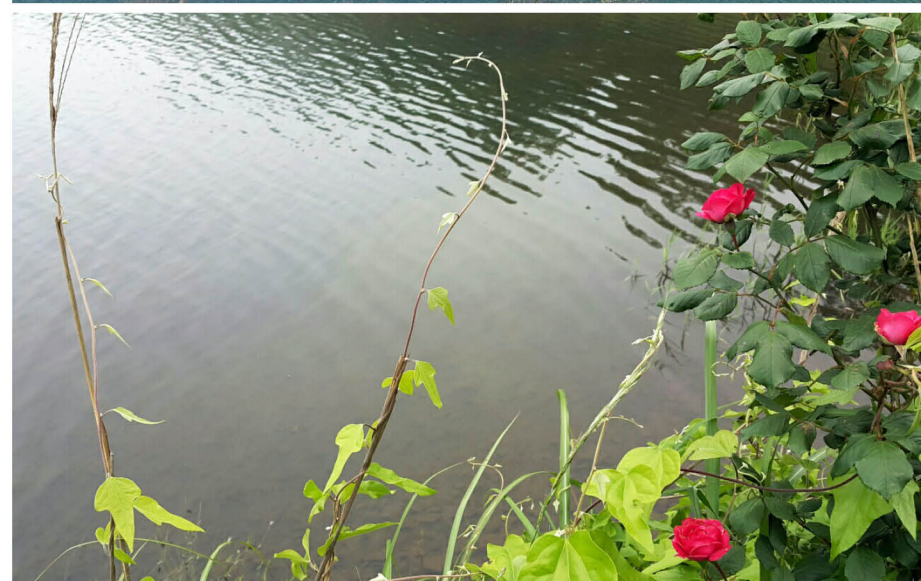
Now

국립군산대학교



GO TO THE
KUNSAN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월명산

소나무 재선충에
월명산이 옷을 벗었다.
민낯이 쪽스러워 산자락
호수 아래 드리웠어도
감출 것 없는
저 산이 아름답다.

어찌 아쉬움인들 있으랴?
또 다시
푸르름으로 채워질텐데
세상이 가져다 준 잡동사니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작으로
더 푸르게 돌아날텐데

주님 은혜로 채워진 아침
까까머리 월명산이 아름답다.

2016년 5월 17일 아침 월명산에서

최 윤

1959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졸업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어류학회장,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 역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PING®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GRAND OPEN

20만원이상 구매시 고급양말 증정/30만원 이상 구매시 골프볼(2pcs) or 골프우산 증정

PING 골프&스포츠 정상·이월 복합매장

신상품

30% SALE (일부품목 제외)

이월상품

50% SALE (일부품목 제외)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동 외환은행 옆

Tel.063) 463-3800



전북의 맥주 하이트

HITEjinro 군산지점





아디다스 군산본점 스포츠 · 오리지널스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4-7 063)442-5787~8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로 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양금빵과 야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주문 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뜨거운 대한민국

뜨거운 계절이다. 날씨도 뜨겁고, 하루 같이 뉴스를 달구는 이슈들도 뜨겁다. 조용한 시골 마을 성주에 난데없는 사드(THAAD) 기지 설치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말 할 것 없고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고안하고 미국이 개발, 제작하여 미국이 독자 운용하는 자국 방어용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이의 배치 지역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말에 설득력이 실리고 또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 라지만 엮어지면 코 닿을 남한을 공격할 때 굳이 고고도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들어 북한은 핑계일 뿐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에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다는 인식도 만만찮은 듯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의혹과 여론을 일축하고 어디까지나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며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국론분열과 갈등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없길 바라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놀음에서 주권국으로서 우리가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정 청탁 금지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재단과 교원 등을 포함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위헌 심판 제청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기각하고 원안대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OECD국가 중 부패율이 상위권인 우리나라답게 해당 세력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예상은 했던 터라 귀추가 주목되긴 했지만 원안 통과는 고질적 부정부패 연결 고리 차단 of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일정부분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정작 불신의 대상으로 조롱받는 국회의원 이 법의 적용에서 자신들에게는 예외를 두는 교묘한 조항을 넣어 처벌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후진적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라는 중론도 만만찮다.

아직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10년간 80조 원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을 면치 못하는 저자리걸음 출산정책, 위안부 당사자들의 뜻을 무시한 일본과의 일방적 위안부 문제 합의, 수많은 재난을 겪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누구보다 법운용에 추상같아야 할 일부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의 탈법적 부정부패, 묻지마 범죄와 가족 간 중범죄 급증, 허리가 휘어만 가는 서민경제, 심심하면 터지는 고위층의 성추문에 국내 최고 CEO로서 세계적 기업인인 L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까지 보도되는 등 무엇 하나 즐겁고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보니 뉴스 채널은 식상해서 아예 돌려버린다는 사람도 많은 여름이다.

글|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in0101@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다이도 063-452-3800_ 식사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소호헤어 063-446-0139_ 커트 이용권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 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전기영	김아름	고은경	김남두	조은주
김유진	오규범	김지혜	한준열	김지수
이민아	오영화	최지아	정우민	이경은

제26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접수기간

2016. 07.13(수) ~ 07.15(금)

전시기간

2016. 08.26(금) ~ 08.31(수)

군산 예술의 전당 1, 2, 3 전시실

부문 한글 / 한문 / 현대서예 / 문인화 / 전각 / 서각
(작품은 표구하지 않고 출품해야함)

규격 전지 (70×135Cm), 세로 1/2 (2행이상) 중 택일

작품내용 창작 및 임서로 발표한 적이 없는 작품

원서교부 2016년 6 월 1일부터
원서는 본회 카페에서 다운 받아 활용해도 무방함

출품비 1점, 30,000원 / 2점, 50,000원 / 3점, 70,000원

심사발표 2016년 7 월 20 일 수요일 오후 3시
본회 카페에 공지 및 개별통지

시상 2016년 8 월 27 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군산예술의 전당 제 1전시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은 본회에 귀속됨.
낙선작품은 심사후 10일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음.

특전 입상자는 본회 소정의 규정에 의거 합계 15점 취득시 초대작가로 추대받을 수 있음
(대상 7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5점, 삼체상(특선1점포함)5점, 특선3점, 입선 1점)

작품 반출 전시 종료 후 3일 이내 (찾아가지 못한 작품은 착불로 송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 사무실
cafe <http://cafe.daum.net/koresmgcalli>
주소 우편번호(54025) 전북 군산시 중정 1길 19 (개복파출소 앞)
H·P 010-5320-6968 (정진화) / 010-3684-9300 (이광석)
FAX 063-446-1101
은행계좌 농협 301-0174-0801-91 사단법인 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

구분	일반부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문인화는 화제 글씨 10자 이상 필히 쓸것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4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입선이상 작품은 주최측에서 일괄표구하여 전시하며, 표구하지 않는 작품은 낙선처리함
삼체상	상장	· 심사결과 대상,최우수상, 우수상 후보자는 현장취회에 응해야 함 (미 참석시 낙선처리함)
특선 00명	상장	
입선 00명	상장	

주최  (사)새만금 서예·문인화진흥회
Seamangeum Calligraphy and Literary painting Promotion

주관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 예총 군산지회
군산 매거진

(사)한국 미술 협회
(사)한국 서예 협회
월명 서화 학회
(사) 한중민간인친선협회

배포처

군산매거진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원도심_ 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 나운동_ 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 은파_ 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 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H HAT) 063-466-8202
- 기 타_ 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다이도 063-452-38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in0101@hanmail.net



Vol. 65 | 2016.08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사진	진정석	jin0101@hanmail.net
디자이너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문화디렉터	이화숙	lila3006@hanmail.net
시민기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시민기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민기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민기자	삼권택	sys2091@daum.net
자유기고	이춘우	kinkyfly@naver.com
컬럼니스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럼니스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문화평론가	서진욱	seoball@lycos.co.kr
광고영업이사	오현수	onark5@hanmail.net

제작_ ICM www.creativemind.kr/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3-1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루이까스텔 군산상설점

70%~50% SALE

봄·여름 이월행사

구매금액별 사은품증정

매장 방문고객 - 골프 tee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양말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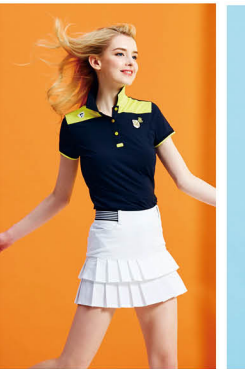
30만원 이상 구매고객 - 볼마커, 열쇠고리 택 1

5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우산, 수건세트, 골프장갑 택 1

■ 신세계, 롯데,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단체주문 특별우대※



위치 : 중앙로 123 (개복교회 앞)

TEL. 063) 443-0877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조미영 소장

그는 군산 최초 플로리스트(Florist)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지난 월요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소장 조미영)를 찾았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선다. 온화한 모습의 故 이태영(1914~1998) 박사 사진이 객을 반긴다. 궁서체 글씨가 눈길을 끈다. ‘결혼은 성인 남녀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두 사람의 행복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글귀로 시작하는 <가정헌장>이다.

부부 금실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가정헌장>.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지

함이 묻어난다. 1986년 10월 당시 이태영(李兌榮) 박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정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4개 항으로 된 <가정헌장>은 결혼의 참뜻을 규정하고, 동등한 권리, 동등한 재산권 등 주로 여권(女權)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가정상을 제시한다. 특히, 결혼은 혈통 계승이나 가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혼 요건도 당사자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피폐한 1980년대 당시 결혼 풍조에 대한 경종이자 신성한 남녀관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이태영의 판사 탈락은 불우한 여성들에게 크나큰 축복

조미영(66) 소장과 인사를 나눈다. 해학이 번득이는 토속적인 말씨, 구수한 입담 등 영락없는 이웃집 아주머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는 푸근함과 여성 NGO(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독특한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는 “이태영 박사는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는 가족법 개정과 여성인권 향상에 평생을 바친 한국 여성운동의 어머니”라며 “사랑과 열

정으로 세상을 바꾼,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다.”라고 부연한다. 이어 상담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한다.

“우리 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등 변민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인권 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웃들의 인권 회복과 가정의 평화를 목표로 가정폭력 상담도 병행하고 있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법조인이자 인



권운동가인 이태영 박사가 1956년 여름에 창설했죠. 오는 8월 25일 회갑연(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군산 지부는 1988년 7월 전국 31개 지부 중 11번째로 개소했어요. 업무를 개시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음에도 많은 분이 위치는 물론 이용 방법조차 모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태영 박사는 1948년 주부의 몸으로 서울대 법대에 최초 여학생으로 입학한다. 1952년에는 한국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 여성 합격자가 된다. 판검사 실무 교육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니 마땅히 검사나 판사로 임용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정일형) 마누라를 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자서전 <동행>(2008년 펴냄)에서 “당시(1950년대 초) 여성들은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자이자 약자였다”라며 “이태영 변호사가 이끈 가정법률상담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암흑을 가르는 등대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역설적으로 이태영이 판사로 임용되지 않은 것은 이들 기댈 곳 없는 불우한 여성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었다.”라고 회고한다.

여고시절 꿈은 ‘섬마을 선생’

조미영(趙美英) 소장은 전북 군산 출신이다. 초중고 대학도 군산에서 다녔다. 남편(이영수 신생농원 대표)도 군산 남자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적잖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타 도시로 이주하던 80~90년대, 그는 고집스럽게 고향을 지켰다. 이렇듯 그의 애향심은 남다르다. A4용지 네 장을 빼곡히 채운 NGO 이력과 지역 사투리를 고집스럽게 구사하면서 “나는 군산의 올~맨!”이라고 내세우는 것에서도 자부심과 애향심이 느껴진다.





그의 여고시절 꿈은 육지 문명과 동떨어진 외로운 낙도(落島) 분교 교사. 그는 “인간에게 맑은 공기와 쉼터를 제공하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나무가 못되면 줄기라도, 줄기가 못되면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못되면 나뭇잎, 나뭇잎도 못되면 푸른 잔디가 되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겁고 편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 그 마음은 철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단다.

여고생 조미영은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군산 교육대학에 진학한다. 섬마을 선생이 되어 까까머리 섬개구리들과 수업하는 모습을 늘 가슴에 담고 지내던 그가 대학졸업 후 첫 발령을 받은 곳은 전북 정읍의 신태인초등학교. 그 때만 해도 신태인은 산간벽지였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을 잊지 못하던 애송이 교사 조미영. 그는 1974년 집안 어른의 소개로 천생배필이 될 이영수 신생농원 대표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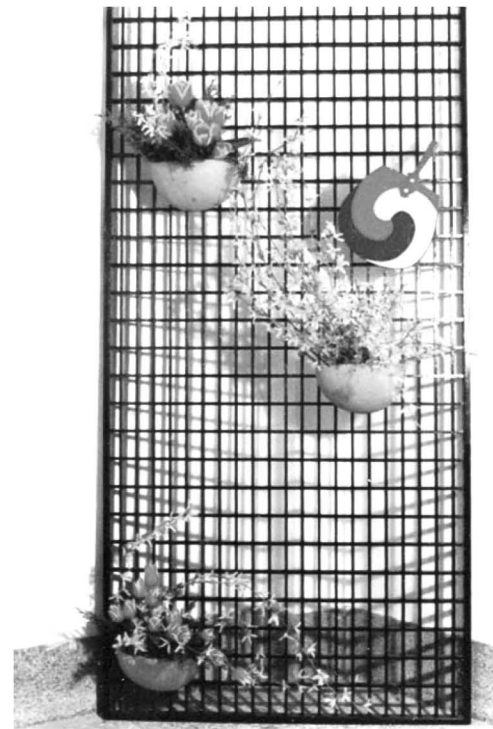
“남편은 군 제대를 앞두고 있었죠. 몇 개월 후 혼례를 올리고 남편은 시아버지가 군산 외곽지역의 산과 밭을 개척해서 마련한 농원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흠뻑새를 맡으며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죠.(웃음) 사람들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제가 가정경제도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옛날이

나 지금이나 수입금 모두를 꼼꼼한 남편에게 맡기고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고 있어요.

꽃꽂이는 시어머니 권유로 배우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교직을 고집했지만, 시어머니의 완고함에 섬마을 교사 꿈을 접어야 했죠. 신생그릴(양식을 취급하는 레스토랑)과 꽃가게(신생화원)를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모두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양했죠. 시부모들이 해방 후 군산에서 처음 창업한 그릴이라서 호기심이 동했으나 대학 때부터 관심 있던 꽃꽂이(꽃가게)를 택했습니다.

처음 꽃꽂이를 배우러 다닌 해가 1975년, 그때만 해도 꽃꽂이는 귀족적 취미로 인정받던 시대였죠. 하지만 사명의식 때문이었는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만삭의 몸으로 서울(윤선꽃꽂이회)로 배우러 다녔고, 산후 몸조리할 틈도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하루점드락(온종일) 쪼그리고 앉아 신부 부케를 43개나 만든 날도 있었죠.

둘째 낳고는 아예 젓 짜는 기계를 가지고 다녔어요. 젓가슴이 탕탱 부풀어 오르면 유명 백화점이나 은행 화장실에 살짝 숨어들어가 젓을 짜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의도 받고, 실습도 했으니깐요. 꽃꽂이에 미쳐있었던 거죠.(웃음) 시어머니를 30년 넘게 모시면서 배운 것도 많아요. 1960년대에 농원을 개발하고 며느리에게 꽃꽂이를 권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시부모들의 선지자적인 통찰력과 도전정신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군산 최초 ‘플로리스트’에서 NGO로

신발이 닳도록 군산-서울을 오간 애기엄마 조미영은 1980년 (사)꽃꽂이작가협회 1급 사범 자격증을 따낸다. 군산 최초로 자격증을 갖춘 전문 플로리스트(화훼장식가)가 된 것.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쾌거였다. 그는 꽃꽂이 예술작가협회 및 개인전(12회)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선다. 특히 첫 개인전으로 섬개구리 도서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열어 수입금을 전하는 것으로 여고시절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

그 후 KBS 군산방송국 여성취미코너(3년), 군산 여성회관(15년), 군산공단 입주 기업들, 군산대, 서해대, 군산간호대 등으로 강의를 나갔다. 그에게 꽃꽂이 강의를 수강한 사람은 군산비행장 미군들에게 버림받은 양공주를 비롯해 직장인, 공무원, 가정주부까지 다양하다. 그중에는 꽃꽂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미국과 국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제자도 있다. 아예 직업을 바꾼 회사원, 인생행로가 바뀐 주부도 있단다.

그의 NGO 활동은 2006년 4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두드러진다. 이곳저곳에서 회장 및 위원장 수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 그는 군산여고 총동문회장을 맡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기반을 다지고 후배에게 물려준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여성단체연합회, 한국부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단체로 가정법률상담소를 꼽는다.

“군산지부 출범 때(1988)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초대 소장(백은기)을 도왔어요. 그 후 10년 동안 이사(理事)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유달리 애착이 가는 이유는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 4월 8일 취임하는 날부터 주요 일정과 느낌 등을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거 하나로도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 놀랍니다. 다른 단체 회원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네.... (웃음)”

이태영, 이희호는 한국 여성계의 큰 별

조 소장은 꽃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도 인연을 맺는다. 박정희 대통령 급서(1979) 때 군산시청 분향소 조화와 영정 바꾸기가 그의 손을 거쳤다. 그 후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군산 방문 때도 어김없이 그가 만든 수반과 꽃다발이 전해졌다. 꽃을 좋아하는 외빈이 방문할 때는 남편 농원의 수목과 분재까지 동원됐다. 손님이 지나가는 위치에 조미영 플로리스트 작품들을 함께 진열해 분위기를 돋웠던 것.

군산시청 직원 수상록 <은파에서 재보선창까지>(지은이 최영)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청와대 경호실은 유별나게 유난을 떨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 테이블을 야기 자기한 수반으로 장식하면 청와대에서 경호관이 나와 점검하였다. 어떤 경호관은 꼬챙이로 수반을 수없이 쏘아댄 후 딱지를 붙였다. 그러면 시 청사는 비상이 걸린다. 수반을 만든 조미영은 가슴 조이며 시청과 화원을 장판지가 아프도록 뛰어다녔다.

조 소장은 “김영삼, 김대중(DJ), 노무현 대통령은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면서 안타까워했다. 그중 DJ는 시택 어른 모두가 열렬한 팬이었다 한다. 시숙인 이영호 전 한일장신대 총장은 손자 손녀 이름을 ‘홍중이’, ‘홍담이’ 등 ‘홍’자 돌림으로 지을 정도였다.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벽에 걸어놓고 가보처럼 여겼는데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것. 그는 이희호 이사장과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대중 대통령 아내이자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 이야기는 이태영 변호사 자서전 <나의만남 나의인생>(1991)에도 나옵니다. 이 여사 역시 여성운동의 리더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피난시절부터 이태영 변호사와 남녀평등의 기반을 다진 한국 여성계의 큰 별이었죠.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부부가 동반 참석하는 등 청와대 문화가 바뀌죠. 가족법 개정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었습니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에 추모시 <이태영>을 쓴 분이죠. 고은 시인은 시외숙(이 덕)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돌아가신 이 덕씨 조카며느리라며 인사하자 반가워하면서 살포시 안아주더군요. 시외숙은 1950년대 군산 개복동에서 비둘기다방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문학인들 매니저 역할을 했죠. 비둘기다방은 문화공간이자 예술인들의 휴식처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토요동인회 시화전, 사진작가 작품전, 미술전 등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과할 때 기쁨과 희열 느껴

조 소장은 법률상담소 외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 전문위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 전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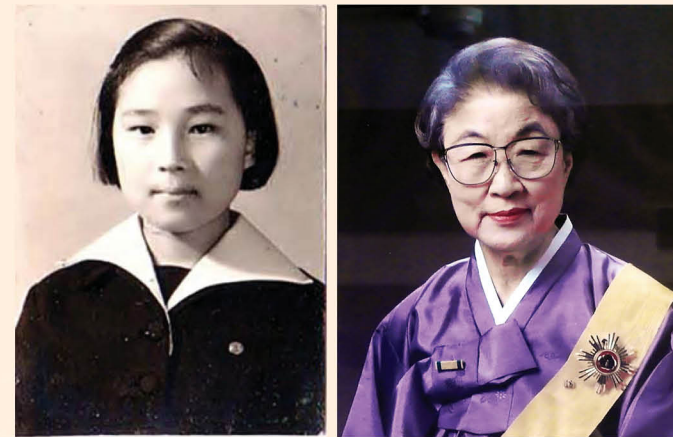
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가출과 잦은 말다툼, 성격 차이 등으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던 부부가 상담을 받고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부부가 상담 후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람을 느끼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내 잘못이라며 진정으로 사과할 때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희열을 느끼죠.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어요. 일흔이 넘은 부모 이혼을 부추기는 자녀들을 보면서였죠. 이유는 아버지가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데 그 여인을 세컨드(작은 부인)로 집안에 들이면 상속하는 재산이 줄어든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하는 겁니다. 돈이 원수(원수)라고 해야 할까, 실망했죠. 경제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게 풍족해졌다고 하지만, 인심과 정서는 더욱 메마른 것 같아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적 주부로, 1980년대에는 꽃가게 주인과 꽃꽂이 강사로, 1990년대 이후에는 NGO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한국의 ‘우먼파워’를 과시한 조미영 소장, 그는 “돌아보면 ‘항상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봉사가 천직이라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상담소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재삼 당부했다.

“우리 가정법률상담소는 건강하고 웃음꽃 피우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담원들은 법대를 나온 수재들이에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워 마시고 상담소 문을 두드리세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군산시 대학로 36-1(중앙로1가) 신생화원 건물 3층
Tel. 063-442-1560 Fax. 063-446-1563



고은 시인과 조미영 소장(2011)



정일형 이태영 부부(왼쪽)와 김대중 이희호부부(1968)



사회생활 시작할 때
빛이 8천만원,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죠."

지방소도시 청춘남녀 인터뷰_ 46

군산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김선진

글 | 배지영(시민기자)
okbjy@hanmail.net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같이 방송부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총연출이었고, 친구는 FD(연출 보조)였어요. 지금 그 친구는 방송대 졸업하고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거든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대요. 현장에서 일 하는데 먹고 사느라 저금도 전혀 못 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지? 진짜 부러웠죠. 저도 하고 싶던 일니까요. 누가 저보고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전히 간호대 갈 것 같아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사니까요.”

선진씨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학생,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았다. 집안 살림살이에 압류딱지가 붙은 게 고3, 선진씨는 처음으로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느꼈다. 부모님이 고단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빨리 학교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빨리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2008년 여름, 수능 3개월 앞둔 어느 날. 선진씨는 전망이 밝다는 남자 간호사 세계를 알았다.

갈 곳은 간호대학뿐인 것 같았다. 문제는 성적, 그는 학교 공부에 소홀했다. 친구들과 노는 게 먼저였으니까.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어느 간호대학에 지원하든,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일단, 수능시험에 매달렸다.

“모르니까 책을 다 외웠어요. 각 대학마다 보는 점수가 있거든요. 군산간호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잘 본 과목 두 개를 합산했어요. 사회탐구영역도 네 과목에서 잘 나온 두 과목만 선택해서 평가하고요. 모의고사 보면, 항상 6등급 정도 나왔어요. 근데 수능시험은 운이 따랐어요. 국어 3등급, 영어 4등급, 사회탐구는 두 과목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선진씨는 군산간호대학 추가합격순위 200번이었다. 합격생 중에서는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덕분에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학교 문닫고 들어왔다”, “꿀등으로 들어왔다”는 말도 스스로없이 했다. 시험 점수가

평소처럼 나왔다면, 분명히 떨어졌을 터였다. 선진씨는 자신의 합격비결을 ‘운’이라고 했다.

대학 합격의 기쁨 뒤에 따라온 학비 걱정. 입학까지 남은 3개월, 선진씨는 한 헛집의 주방보조로 일했다. 밀반찬을 접시에 놓고, 매운탕 끓이는 것을 돕고, 잡일을 했다. 시급 3500원씩 받아서는 400여만 원(책 값 포함)인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첫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간호대는 일반 대학이랑 일정 자체가 달라요. 강의 시간표가 아예 짜서 나와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간호학은 기초적으로 미생물학, 생리학, 양리학, 해부학 등 8가지 과목을 배워요. 기본간호학도 배우고요. 영당이 주사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분할해서 놓는 거거든요. 2학년 올라가야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계 같은 수많은 전문 과목을

배워요.”

선진씨는 공부할 때 어려웠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따라만 갔다. 1학년 마치고는 휴학, 돈 벌고 싶었다.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으니까. 핸드폰 매장에서 영업 일도 하고, 음식점의 식당에서 서빙 일도 했다. 어느 날은 결혼식 사회도 봤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5만 원을 받았다.

하루살이 같은 알바보다는 매일 출근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는 익산에 있는 한 과자 공장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 기계가 과자를 만들고 포장을 하면, 상자에 넣어서 나르는 노동. 1일 2교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뒷새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 선진씨는 20kg 짜리 상자를 쉴 새 없이 날라야 했다. 허리가 끊어질듯 아팠다.

“너무 힘들어서 구인광고를 자주 봤어



요. 원광대병원 차트실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전자 차트를 쓰지만 그때는 종이 차트를 갖고 가야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무기록실에 번호 별로 정리된 차트가 500만 개였어요. 저는 그걸 찾아서 각 부서에 넘겨줬어요. 주말에는 쉬고, 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죠. 10개월 간 일했어요. 어차피 간호대학 졸업하면 병원에서 일할 거니까, 도움 되는 일 자리였어요.”

2011년, 2학년으로 복학해야 하는 선진씨는 어머니한테 “등록금 내야 해요. 제가 알바해서 드린 돈 있지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했다.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로 썼기 때문이다. 스물두 살 청년은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이해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주중에는 간호대학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했다.

간호대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병원 실습을 나간다. 혈압 재고, 병실 침상 정리 하면서 병원 돌아가는 시스템을 익힌다. 1주일에 한 번씩은 담당 교수

와 실습에 대한 공부를 하는 ‘컴퍼런스’를 한다. 환자 한 명을 따로 정해서는 의학서적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보고 배우는 ‘케인스’도 한다. 3학년 때도 학교 공부와 실습은 맞물려 돌아간다.

“간호사 면허가 나오는 국가고시를 앞두고는 아예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도 해요. 합격률이 99%예요. 시험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이라 진짜 어려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학교 다니면서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비율이 10% 정도는 되고요.”

2014년 3월, 선진씨는 군산의료원 응급실 간호사가 되었다. 활동적인 그는 응급실 일이 잘 맞았다. 학생 때도 응급실 실습을 선호했다. 아파도 참고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오는 응급실. 치료 받고 나가는 환자들이 “고맙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해도 힘이 났다. 병원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응급실에서

일 잘한다는 인정도 받고 싶었다.

응급실에는 술 취한 환자도 온다. 간호사 얼굴과 가슴을 서슴없이 폭행하는 환자도 있었다. 그래도 선진씨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좋다.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오고, 그에 대한 대처를 알아갈 수 있다. ‘이 환자는 어디가 아프니까 이런 혈액 검사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일한다. 성취감을 느낀다.

“응급실은 야전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응급실 간호사들은 손이 빨라야 해요. 정확해야 하고요. 긴장을 풀면 안 되죠. 어떤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올지 모르니까요. 응급환자한테 쓰는 약물도, 주사 놓는 간호사가 실수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곳이 응급실이에요. 산재사고도 많고요. 피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도 많아요. 처음에 환자가 죽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힘들었

어요. 의료진이 무슨 수를 써도 못 살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아들이잖아요. 유가족들이 울면 감정이입이 돼요.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뭔가를 하면서 이겨내요.”

사람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일,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종합병원의 간호사 세계에는 ‘활활 태워서 괴롭힌다’는 ‘태움’이 있다. 퇴근하려고 옷 갈아입는데 신발이 날아온 적도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나는 3년 차 간호사인 선진씨에게 ‘태움’을 겪은 적 있냐고 물었다. 선진씨는 “응급실은 꼬투리 잡아서 태우지 않아요”라고 했다.

선배들이 ‘태우지’ 않아도, 간호사 일은 힘들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돌아가면서 한다. 어느 날은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쯤에 퇴근

한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3시에 인수인계를 받고, 오후 11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다. 오후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6시 정도에 퇴근한다. 공장처럼 주간, 야간이 딱딱 정해진 건 아니다.

“퇴근 하려는데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환자가 몰려도 제 시간에 퇴근 못 하죠.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자야 하는데 못 잘 때가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죠. 잠은 안 들고, 계속 깨짚는 소리만 들려요. 일반 회사원들처럼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도 못 해요. 한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는 더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간호사의 이직률은 높다. 병원은 항상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오전에 사표 쓰고, 오후에 새로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이 간호사’라는 말도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해외 간호사로 진출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은 15년째 직업윤리 정직성 1위 직업이 간호사라고 한다. 사회적 평판이 높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도 좌우 수평적이다. 자기 시간도 많이 누린다.

그러나 선진씨는 한국에서,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했다. 대출 받았던 학자금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이미 갚았다. 얼마 있으면 적금도 탄다.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갚을 것인지, 결혼 자금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님 보시기에 제 꿈이 너무 작나요?”라고 되물었다.

내 삶은 남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알아주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뉴욕이나 시카고의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내가 좋으면 된 거다. 환자와 심리적 신뢰관계인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간호 정신으로 일하고 있다면 최고인 거다. 선진씨는 말했다.

“누누이 말하지만 간호대 들어간 것도 운이 좋았고, 간호대에서 버틴 것도 운이 좋았어요. 군산의료원에 입사해서 안 그만두고 계속 일하는 것도 운 좋은 거예요. 간호사 일을 선택하고는 다 운이 좋았어요.”

| Editorial Design By 임유진



이 섬 이름이 '똥섬'입니다

7월 5일 개통한 고군산군도가 육지와 무녀도 연결...
모세의 기적, 똥섬, 버럭샘이

글: 이생곤(사민기자)
grandlee@km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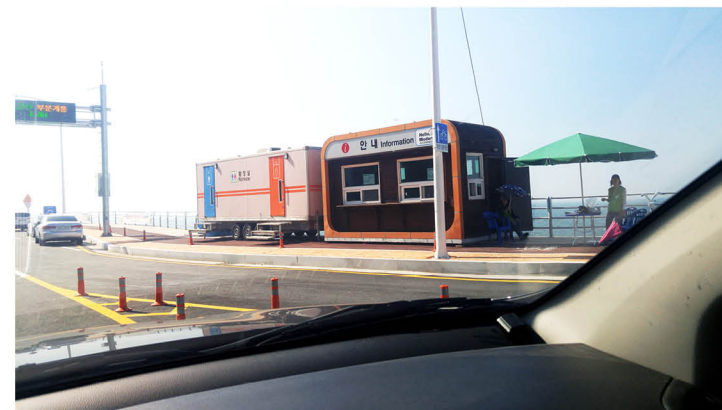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지난 2008년 착공을 시작하여 2016년 7월 5일 역사적 개통이 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 관문인 신시도를 거치면 바로 무녀도 2구 마을이 나온다.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산을 좌우로 끼고 마을공동체로 형성된 무녀도 2구,

흥미로운 이 곳의 문화관광거리를 찾기 위해 필자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속살을 들여다 보았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기자의 입에서는 휘파람이 저절로 새어나온다. 예전엔 바다였던 이곳을 자동차로 운전하다니. 무녀도 2구로 가는 길에 적잖은 흥분이 떠오른다.

신시도 초입에서 얼마큼 왔을까. 웅대한 대교가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 고군산대교는 주탑이 1개인 현수교로,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대교이다. 보통 2개의 주탑으로 구성된 일반 현수교와는 달리 주탑이 1개인 외팔이다. 특히 주탑은 뜻을 형상화한 'D'자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1주탑 현수교로서는 세계 최장(L=400m)이다.



신시도해안교 초입 안내소

무녀도로 향하는 길, 고군산대교 초입에서 찍은 사진



무당 巫, 여자 女, 그래서 무녀도

무녀도는 군산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신시도·장자도·선유도 등 주요 유인도와 함께 고군산군도를 이루고 있다. 이곳 무녀도에는 고려 말부터 전주 이씨가 모여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무녀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무녀봉(131m)에서 내려다봤을 때 무당이 춤을 추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무당 무(巫), 여자 녀(女)를 써서 무녀도란다.

더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무녀도의 옛 이름인 '서들이'에 대한 내용이다. 재미있게도 '서들이' 명칭엔 '부지런히 서둘러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현재 무녀도는 '서들이(1구)'와 '모개미(2구)' 두 개 마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옛 명칭인 '서들이'에서 '모개미'로 따로 떨어져 나온 무녀도 2구, 초로의 마을 어른에게 "무녀도 2구의 옛 명칭이 모개미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 물었다. 어르신 말씀이 기가 막히다.

"모기랑 개미랑이 많아서 모개미인 게벼."

이보다 더 재치있는 답변이 어디 있겠나? 모개미의 어원은 누구도 모른다. 다만 그곳의 관광거리에 관심이 갈 뿐.

무녀도 초입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보이는 무인도 섬.(섬 이름은 없단다)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인 간조가 되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진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간조를 지나 만조에 가까워 모세의 기적은 볼 수가 없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간조시 길이 열리면 왕복 10분이 걸리고, 근처 갯벌은 바지락, 맛조개, 돌게 잡기 등 섬마을 체험활동 장소로 매우 활용도가 높다.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간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문화관광의 볼거리로 등재가 되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섬마을 어린 아이들에게 놀이공원 '앞산'
작은 섬마을이 그러하듯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만한 안전한 곳은 없다. 섬

마을 어린이들에게 놀이공원처럼 사용되는 '앞산', 이 '앞산'에 오르는 곳은 두 곳이다. 예전 초소(전투경찰 근무지)로 불리던 건물을 지나는 뒷길이 있고 바다를 끼고 오르는 앞길(사진)이 있다.

섬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외지인들에게는 힐링 장소(산에 오르면 사면을 둘러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신을 달래준다는...)로 이용되었단다.

마을 장년층인 주민 이주호씨(남·41)에게 물어보았다. '앞산'은 어릴 때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 어릴 적엔 이곳이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육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로봇트 같은 장난감류는 없었지만 목감을 만들어 편을 갈라 전쟁놀이를 했고, 대나무를 잘라서 낚싯줄을 매달아 물고기를 잡기도 했구요. 겨울이면 썰매를 타기도 했던, 어릴적 추억이 많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동네 여사님들 소통의 장소 '우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마을은 물이 참 귀하다. 먹는 물은 물론이고 생활용수 또한 매우 귀하다. 그래서 빨래도 쉽사리 하지 못한다.

동네 딱 중간에 있는 이 우물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서 먹을 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빨래를 하거나 잔칫날 식기 세척용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 삶을 이야기 하고 이웃간 가정사를 공유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선비의 기개가 느껴지는 대나무 군락지

대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고 마디가 뚜렷하다. 마디 사이는 속이 비어 통을 이루고 마디는 막혀 강직함을 유지한다. 이런 연유로 선비의 지조와 부녀자의 절개에 비유되었다. 고려말 정몽주의 선죽교나 구한말 민영환이 자결한 곳에 대나무가 돌아났다는 이야기는 괜한 것이 아닐 것이다.



▲ 섬터 횃집 주인장인 임근택씨 부부, 직접 썬 활어회(아래 사진)
◀ 무녀도 2구 마을에 있는 대나무 군락지로 두곳 모두 주택 뒷 쪽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나무 숲을 통과하는 바람소리가 무척이나 이채롭다.

무녀도 2구엔 대나무 군락지가 두 군데다. 산 속이 아닌 집터에 있다. 대나무 종류 중 이곳에 있는 종은 '엽쟁죽'으로 낚시대 외에는 쓰임새가 없다. 주인장 말로는 전부 다 베고 싶지만 다시 자라니 괜한 수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둔단다.

대나무가 있는 무녀도 2구 마을, 지조나 절개와 상관 있는 뭔가를 찾아 내려 했지만 괜한 수고였다. 고즈넉한 섬마을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대나무와 맞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정겹다.

마을주민 부부의 순박한 마을사랑

동네 초입을 거치고 마을 중심을 지나자 허기가 밀려온다. 횃집 앞에 놓여진 활어 수족관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것은 신이 주신 본능일 터. 수족관 속 활어를 쳐다보고 있으니 주인장이 "한 사라 하세요" 그러다. 지갑 속 돈은 있으니 마다할 리가 없다. "좀 썰어주세요"라 답하고 화가 나올 때까지 잠시 대화를 나눴다.

20대 초반 외지에서 이 동네로 김 양식 책임자(주인 대리인)로 와서 산 지가 30년째라 한다. 고향보다 더 오래 산 이곳 무녀도가 너무 너무 좋단다. 정작 자신의 고향은 잊은 지 오래고 누가 고향이 어디냐 물어도 무녀도라고 말을 한다는 '근택이네집터' 주인장 임근택씨(56세). 그의 무녀도 사랑은 마을 원주민 누구와도 비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회 한 접시를 똑딱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돈을 안 받겠다고 한다. 장사하시는 분에게 실례가 될 수 있어 거듭 돈을 계산 하려는 나에게 주인장은 말을 건넨다.

"오늘 아침에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활어가 걸려들었네요. 오늘 반가운 분이 방문하러나 했는데 꼭 손님이 그 반가운 손님 같아서 기분 좋게 서비스하고 싶네요."

허기진 배를 회로 채우고 거기에 인심까지 채웠으니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이라...

재미있는 명칭, '똥섬'

"저기 보이는 돌산요.. 뭐로 보이나요... 우리 섬 사람들은 '똥섬'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재미난 이름이다. '똥섬', 왜 앞에 보이는 섬을 '똥섬'이라고 했을까? 혹시 옛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용 섬(?). '똥섬'에 대한 기원을 모르는 주민들.

한 어르신께서 흥미있는 말씀을 하신다.

"저기 똥섬에 가든 문양석이라고 있네.. 돌판에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돌이요... 겁나게 귀한 돌이어서 무녀도 2구 허름 '문양석'이었죠.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지요. 그



사진 우측섬, 무녀도에서 서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간조시에는 직접 걸어서 갈 수가 있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만조 시간대로 아쉽게도 모세의 기적을 볼 수는 없었다.



90년도 말까지 생활용수로 이용된 마을 우물, 90년도 말 전 수장을 만들기 전까지 이 우물이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함





아트월 같은 문양석, 야외 갤러리라고 불리워도 전혀 손색이 없는 퇴적암으로 만들어진 바위이다.

러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돌 구경하고 싶으면 함 가봐요."

퇴적암 속 진주 '문양석'

마을 어르신이 이야기한 '문양석' 도대체 어떤 돌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가져갔단 말인가. 무녀도 2구 앞바다의 몽돌을 밟으면서 '문양석' 구경에 나섰다. 수억년 전부터 켜켜이 쌓인 점토와 모래 등이 층별로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수채화의 수려함으로 다시 태어난 돌에서 자연의 신비한 섭리를 느끼며 그저 감탄한다. 지금은 돌 유출이 금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유출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서 수석 전문가들이 많이 주워갔다고 한다.

아트월 같은 문양석, 요 물건이 왜 한때는 무녀도 2구를 대표했는지 그 풍경이 말해주고 있다. 퇴적암과 곳곳의 주상절리가 합쳐져 야외 자연 갤러리라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외갤러리에서 문양석 구경으로 흠뻑 취해 있다. 계속 이어지는 문양석의 파노라마식 비주얼 덕분에 눈을 뗄 수가 없다. 한참을 걸어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동굴이었다. 몽돌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내부가 깊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동굴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민들이 동굴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가. 그러하다면 최초의 발견자는 본 기사일 것이다. 찬찬히 입구에서 동굴 안쪽을 살펴 보았다.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분명할 터. 침식이 되면서 이어 밀려온 몽돌이 입구를 막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멀리서 본 버럭샘 전경. 1930년대 초에 길이 70미터 제방을 1년여 간의 노동으로 바닷물 유입을 막아 60년도 말까지 일부 마을 주민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초기 제방을 막았던 돌은 형태만 남아있고 지금은 시멘트로 막아져 있어 견고하다.



야외 문양석 갤러리를 구경하는 중에 발견한 동굴. 동굴 안쪽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각종 어구 잔해로 뒤덮여 있다.

동네로 나와서 지나가는 주민한테 좀 전에 본 것이 동굴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졌다. 주민분의 말이 걸작이다.

"동굴처럼 생겼으게 동굴이지요."

또 하나의 무녀도 2구, '버럭샘이'

현재 1구와 2구로 나누어진 무녀도, 1960년도까지는 1구와 2구 중간에 세 가구만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1930년대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하여 60년대 십이동파도 주민 북한 납치사건을 계기로 2구 마을로 이전하기 전까지 거주지 역할을 한 곳으로 1, 2구 주민들은 그곳을 '버럭샘이'라고 불렀다.

그 지명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왜 '버럭샘이' 일까. 해답은 당시 버럭샘이 거주자였던 어르신한테서 들을 수가 있었다.

"버럭샘이는 원래 바닷가였는데 1930년대 초에 우리 할아버지가 군산 비행장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지어먹을라고 제방을 막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올 아버지가 말씀 하기로는 근 1년간 했답니다. 돈은 없으게 할머니가 담은 막걸리를 일당 대신해서 막은 제방어요. 참말로 돈도 없이 막걸리로만 일꾼들 부렸다는 게 신기하지요. 제방을 막았으니까 그 다음은 거주를 해야겠지 아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 샘물이 하도 버럭버럭 잘 나와서 '버럭샘이'라고 했대요.(웃음)"

꼬박 하루 머물렀던 무녀도 2구... 앞서 기술한 내용으로 관광거리를 다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더 많은 흥미로운 거리가 있는 듯... 이 동네는 나의 맘을 계속 붙들어 놓는다. 여전히 순수함이 살아있는 인심과 무한한 관광자원, 무녀도 2구 재방문 개봉박두...



귀를 쫓긋 세우게 하는 환상의 섬 선유도 이야기

편정수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을 만나다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 '고군산군도'는 63개 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술국치(1910) 이전엔 70개가 넘었다고 한다.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간척공사로 사라진 것. 오식도, 내초도, 입이도, 무의인도, 가내도, 조도, 장산도, 비응도 등이다. 야미도, 신시도, 북가력도, 남가력도 등은 최근 새만금공사로 육지화됐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내년 말쯤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육지와 연결돼서다. 왠지 친한 친구를 멀리 떠나보낸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온다. - 기자 말

세계 최장(33.9km) 기록을 보유한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국도 4호선(8.8km) 가운데 1, 2호 공구(신시도~무녀도, 4.4km)가 7월 초 개통됐다. 나머지 3공

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 구간은 2017년 12월 완공된다. 신시도-장자도 사이에는 6개 해상교량이 세워지고, 도로 양편에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란 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약 50km 떨어진 서해상에 63개 구릉성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이 무리를 이룬다. 상주인구는 4천 명 남짓. 그중 야미도와 신시도는 새만금공사로 진즉 육지가 됐다. 말도, 방축도, 횡경도, 관리도, 대장도, 장자도, 무녀도 등 울망졸망한 유무인도 20여 개가 신선이 노닐었다는 선유도(仙遊島)를 연꽃잎처럼 에워싸면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한다.

단등교는 국내 최초, 세계 최장의 1주탑 현수교

지난 주말, 편정수(62)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다. 선유도 선착장 앞 관광안내소에 상주하는 그는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의 고향은 고군산군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비안도. 그는 초등학교를 섬에서 다니면서 성장했다. 보릿고개 시절, 섬소년이었던 것.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섬 사랑은 남다르다.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와 관광객 서비스 문제점을 군산시에 건의하는 등 옴부즈맨 역할도 자임한다.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웅장한 모습의 교량(단등교)은 고군산군도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입니다. 단등교는 국내 최초, 세계 최장의 1주탑 현수교(주경간장 400m, 주탑높이 105m)죠. 안전성이 우수한 타정식 현수교로 건설됐고, 항해하는 배를 형상화하여 360도 입체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유심부 주탑을 육상(단등도)에 세운 게 특이하죠.

내년 말쯤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가 육지와 연결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관광객을 맞이한다면 청정지역인 고

군산군도 전체가 오염될 수 있겠죠. 따라서 섬 주민과 군산시에서는 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모노레일이나 무공해 셔틀버스 운행 등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쫓긋 세우게 하는 선유도 지명유래

선유도는 본래 세 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파도에 쓸려온 모래가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쌓여 언덕을 만들면서 지금처럼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 백사장 폭이 200m나 되고, 어지간히 멀리 나가도 수심이 2m에 미치지 못하는 해수욕장 탄생도 그에 연유한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구역도 선유 1구(통계·통리), 선유 2구(진말·진멸), 선유 3구(전월마을)로 나뉜다.

마을의 지명 유래도 귀를 쫓긋 세우게 한다. 통계·통리는 마을 지형이 통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말·진멸은 섬에서 으름가는 마을로 조선 시대 서해상을 방어하던 수군기지 군산진(群山鎭)이 있었다고 전한다. 선유도가 고군산도 중심

이 되는 것도 그에 유래한다. 망주봉을 배경으로 조성된 전월리(田越里)는 ‘밭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란다.

편정수 문화관광해설사(아래 해설사)가 들려준 선유도 명소 이야기는 선유팔경(선유낙조, 삼도귀봉, 월영단풍, 평사낙안, 명사십리, 망주폭포, 장자어화, 무산십이봉)을 비롯해 선유도 해수욕장 생성 배경, 고군산군도의 옛(고려 시대~조선 전기) 명칭인 군산도(群山島) 유래, 망주봉(望主峰) 전설, 선녀가 누워있는 형상의 선유봉 이야기, 우리나라 섬과 해안지방에 내려오는 장례 풍속인 초분(草墳) 공원 등.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호수처럼 맑은 물과 유리알처럼 고운 모래밭이 3km 가까이 펼쳐지면서 쾌적한 자연과 조화를 이뤄 ‘선유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리하여 ‘명사십리’. 이곳에는 공중하강 익스트림 레저체험시설인 스카이라인(높이 45m, 길이 700m), 구불길, 자전거투어, 어촌체험, 갯벌체험 등이 알려지면서 연인과 가족동반 관광객이 늘고 있다.



고군산군도연결도로▲
군산진 절제사 선정비▶





고향 발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점심은 편 해설사가 소개하는 식당에서 우럭 매운탕으로 해결했다. 오후에는 소원을 빌면 모두 이뤄진다는 ‘기도등대’와 전월마을 선착장을 돌아보고 선유봉(111m)에 올랐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왼쪽으로 끼고 정상에 오르니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크고 작은 섬들이 무리지는 고군산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동쪽으로는 물안개 자욱한 변산반도를 비롯해 가력도, 신시도, 비안도 등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스라이 다가온다.

아래는 편정수 해설사와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 해설사가 된 계기는?

“나는 고군산군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비안도(飛雁島)에서 태어나 비안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에서 다녔다. 회사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두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 모두 결혼시켰다.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던 중 고군산 지킴이 윤연수 선생 추천으로 지원, 2011년 1월 해설사가 됐다.”

- 5년을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가력도 안내소에 근무할 때다. 폭설로 새만금에 차가 다닐 수 없어 비응도까지 걸어갔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가력도 안내소 철수 후 선유도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여객선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풍랑으로 군산까지 가지 못하고 비응항에 비상 입항한 때도 있었다. 파도가 선상을 덮칠 때는 아찔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섬이라서 불편함은 있지만, 고향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근무가 즐겁다.”

- 지난 1월 군산시 해설사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회원들이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군산은 지난 몇 년 동안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군산시가 펼치는 관광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그래프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협조와 격려는 물론, 해설사들 노력도 미약하나마 일조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해설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6명이 동료 곁을



떠났다. 2014년까지 32명이었는데 지금은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숫자가 줄었다고 해설사들 처우가 좋아졌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해설사들 분위기는 그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근무 체계도 상주근무에서 순환근무제로 바뀌어 더욱 복잡해졌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군산시와 ‘공생공존’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회원들의 여망이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한 것 같다. 어깨가 무겁다.”

“선유도 관광은 1박 2일이 적절, 의미 있는 힐링여행 될 것”

-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군산의 갯것 이야기> <세월 속에 사라져 가는 무녀도 완양 염전 이야기> <선유도 육지를 품다(고군산 연결도로)> <이순신 장군과 선유도 이야기> <내선 완입의 꿈을 품다> 등 선유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 스토리텔링 식으로 시나리오로 작성해놓고 관광객들에게 하나씩 해설했더니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선유도는 자그만 섬임에도 송산행궁, 오룡묘, 자복사, 초분 등 역사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다. 재미나고 애뜻한 전설도 여러 개 전해진다. 그에 착안하여 관광객들이 멋진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역사탐방, 갯벌체험, 어촌체험 등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코스다. 민박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관광 마인드를 갖도록 권하고 공유한다.”

-끝으로 선유도 자량을 부탁한다.

“선유도 앞에 ‘천혜의 비경’, ‘서해의 보물섬’, ‘환상의 섬’, ‘신선이 노닐었던 섬’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유도는 발길을 조금만 옮겨도 풍광이 바뀐다. 모든 곳이 사진촬영 장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드는 일출·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섬이기도 하다. 갯벌체험까지 하려면 일정을 1박 2일은 잡아야 한다. 사계절 내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행 계획을 짜보시기 바란다. 의미 있는 ‘힐링 여행’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서비스는 실비 만족은 두배

동네미용실 원장 송미정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에 미용실은 많고 많지만 6개월 전 장미동에 오픈한 '동네미용실'은 규모는 작지만 마치 혼사를 앞둔 새색시처럼 정결하고 예쁜 업소다. 미용업소의 경우 대개 외래어를 섞어 근사하고 세련된 이름으로 상호를 짓는 경우가 흔한데 이곳은 그냥 '동네'미용실이다. 그래서인지 정겹고 편안하다. '동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근처'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가 화장을 안 한 채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라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한 설명 같다. 송미정 원장이 상호를 동네미용실이라 한 것도 누구에게나 편안한 이웃처럼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곳이 되고 싶어서이다.

송 원장은 인천 생으로 고교 졸업 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보니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뭔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싶었다. 사실 그녀가 평소 관심을 두던 분야는 미용과 간호사였다. 그 일이라면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만났던 어느 멋진 미용사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심쿵한 그녀는 그 이튿날 직장내 사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곧바로 미용학원에 등록부터 했다. 그녀의 나이 23세 때다. 미용에 입문한 뒤 그녀의 첫 수습 직장은 국내외에 걸쳐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릴 만큼 업계의 선두 주자로 명성을 얻은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인천 연수점이었다.





그녀는 제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힘든 일도 오히려 즐거웠다. 커트에 관해서는 따로 학원에 다닐 정도로 일심정진 했고 스스로 인정이 될 때까지 쉽없이 기량을 연마했다. 직원들에게 술, 담배는 물론 안경 착용까지 철저히 금할 정도로 엄격했던 원장 밑에서 1~2개월을 못 버티고 중도에 그만 둔 직원도 많았지만 그녀는 꿈이 있었기에 중도 포기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미래 언젠가 자신의 업소를 열어 자신에게 영감을 주어 미용사의 꿈을 갖게 했던 그 멋진 미용사 이상으로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을 꾸며주는 훌륭한 미용사가 되어 있을 스스로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났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원장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듣기도 했다.

한눈팔지 않고 미용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17년 세월. 그녀는 3년 전 부군의 직장 따라 미지의 도시였던 군산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업소를 갖고 싶었던 그녀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맘에 쏙 드는 장미동 지금의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개업의 꿈을 이뤘다. 미용실로서는 작은 규모라 할 수 있었지만 첫 시작이니만치 출발은 작게 하고 싶었고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업소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평범하고 촌스러운(?) 상호와는 달리 화이트 톤의 색채에 미용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카페 같은 느낌을 주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민 가게는 누구에게나 산뜻한 기분을 주는 곳이다.



동네미용실의 고객은 유치원생부터 5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보여준다. 여성보다 남성고객이 많은 것도 이채롭거니와 개업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단골고객도 많이 늘고 특히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쁘단다. 고객이 날로 늘는 이유를 묻자 송 원장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하기 보다는 좋은 약품과 재료,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들려주는데, 천성적으로 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 눈물이 어릴 정도로 마음이 여려 매사 자신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더 먼저 헤아리는 심성이 생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도 타 업소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그러나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 한 일을 들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미용업을 택한 것이라 할 만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한 송미정 원장. 6살, 9살,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살고 있는 그녀의 바람이 있다면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들과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좋은 이웃과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예쁜 웃음을 보여준다.

‘동네미용실’
 군산시 동령길11
 (장미동 구 경찰서 로터리 신포만두 옆)
 T. 063)910-3277
 영업시간 AM10:00~PM8:00
 (매주 월요일 휴업)



"군산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

수시탐포럼 주관 대토론회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7월7일 수시탐포럼(의장 김동수) 주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후원으로 '군산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수 의장은 "우리 군산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근대역사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관내 전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는 체험과 역사, 힐링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말로 개회사를 대신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나운동에 신축 오픈한 라마다 군산호텔 2F 갤러리에서 각계 인사들 9명이 패널로 참여하고 약 100여명의 방청인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패널들은 각기 주제와 관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기탄없이 피력하여 군산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한 첫 장을 열었다는 평이다.

<패널 소개>

토론 좌장 : 심인보 호원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 곽장근 군산대 사학과 교수 / 이복 시의원 / 김병옥 군산대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 / 이광석 한중친선교류협회장 / 이진우 매거진군산 발행인 / 장재진 편발리지 협동조합 대표 / 조영호 전주시 관광산업과 팀장

토론회는 좌장인 심인보 교수의 모두발언과 함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 심 교수는 군산근대역사문화 자원 믹스형 개발 방안의 필요성과 근대문화 유형 신·증축에 따른 지원정책 조례 제정, 시간여행 축제를 위한 공간과 인프라 확충,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지역 관광협회의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어서 패널 순으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김동수의장

이진우 발행인

- 군산 관광 콘텐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
- (제안1) 군산 고속버스터미널 문제 심각, 현 터미널의 이전 및 신축 필요성 공감
 - * 군산의 관문인 터미널의 낙후된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
 - * 군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군산 신 터미널 신축 필요(관광객 편의성 제고 및 부수적 경제 효과)
- (제안2) 군산 근대역사경관지구와 공설시장을 폐철도를 활용, 셔틀트레인 개발 방안
- (제안3) 청년몰 관련, 관 주도형보다는 인간 주도형이 바람직
 - * 방치돼있는 구 시청 부지에 청, 장년몰 운영 시도- 장년 취업문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이복 시의원

- 월명동 근대역사, 경암동 철길마을, 이성당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콘텐츠 확보
- 기존 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촉진 전략 마련 필요(다시 찾고 싶은 관광 콘텐츠 등)
- 숙박(호텔) 등은 증가 추세이나 이에 따른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부족
-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도시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도입 필요
- 월명동에 집중된 근대역사 관광 지구를 다각화하는 방안(도심 트레인 활용 등)
- 민간 투자 유치 방안(관 주도형 : 비응항-아미도 부지에 유채꽃밭 조성 등)

곽장근 교수

- 옥구읍성은 문화재 등록이 안 된 상황
-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잘 담아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관광지의 연계전략이 중요(군산 해양문화-중국과의 연계성)
- 근대 이전의 군산은 항구를 대표하는 중심지(해양관광의 도시 인프라 관광 콘텐츠에 중점)





김병옥 교수

- 역사 문화의 발굴과 보전형 관광 콘텐츠
- 기반구축의 문제 노정 -역사 문화적 가치는 소멸이 많음
- 한옥마을 조성, 10여년의 장기적 안목(2~3년의 단기간에 걸친 한옥마을 흥내는 부적절)
- 원형자원에 대한 관심 필요(근대역사관광/새만금관광, 2가지 주제)
 - * 원형파괴 사례가 많아 정제하여 고품격화-일부 잘못된 스토리텔링도 문제시 됨
 - * 상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퓨전 관광 지양(원형 보존을 하면서 천천히 개발해야)
- 곳곳에 산재한 근대문화권역의 공적 공간 활용방안 마련
- 문화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활용, 마케팅 전략 필요(원형보존을 통한 응용 콘텐츠화)

이광석 회장

- 외국인에게 군산이 주는 회색 도시 이미지 탈피
- 중국인들의 군산 유입 인구 증가세
- 비응도 투자 정책 실패 사례
- 비응도-월명동-장미동 등이 연계성을 갖는 차이나타운 조성 운영 필요



장재진 대표

- 군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긍심 필요
- 군산의 도시 정체성 정립(항구도시? 공업도시? 관광도시?)
- 군산 관광은 현지인들이 외지인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의미
- 군산 관광객 135만 명 중 80여만 명이 박물관 유료방문객으로 순수 관광객보다는 학생, 연구 목적의 관광객이 다수를 차지
- 민박 산업에 있어 허가업소와 불법업소 운영 관리 필요



조영호 팀장

- 군산 문화 대표성 강화 필요(전주의 경우 한스타일 대표성)
-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한다 하여 성공 사례 보장 못해
- 군산이 가지는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전주-익산-군산 간 통근 열차 부활을 통한 교통수단 활성화 필요
- 도시 채색 사업도 좋지만 지역의 이미지를 살린 군산다운 색상이 중요
- 적정 관광객 규모와 수준에 걸 맞는 도시 기능을 갖출 필요



<방청객 토론>

송귀봉 군장대 교수

- 산업화 개발이 늦은 군산은 근대역사관광자원을 활용, 관광 산업화로 만회
- 근대역사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삶도 녹여내야
-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맞춰 인간의 욕구에 따른 폭넓은 방안 논의 필요
- 시민들의 동참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필요



김선정 문화관광분과위원장

- 군산의 근대역사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 도서지방 관광 테마 및 개발 현황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 신흥동 일대 옛 70년대 골목길 개발 보존 추진
- 도서지역 관광 : 어촌 체험단지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숙박서비스업 개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공(현재 지선이 없는 상황으로 지선 개발을 위한 노력 중)
- 말도, 어청도 등 트레킹코스 개발 추진(섬 관광객들의 연계 활성화)



비응도 어촌계장

- 비응항 방파제 신규 축조 예정(관광 관점에서 특별한 방파제 신설 방안 모색 필요)

수시탐포럼은 군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토론회, 강연, 세미나, 교육, 행사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정보 교류와 지식경영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며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창립된 사회단체로서 사무처와 별도로 건설환경분과, 해양수산분과, 문화관광분과, 농림축산분과, 교육체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군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적 유산과 함께 고군산군도, 새만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고 소핑거리 활성화, 수산물시장현대화, 금란도 개발, 공연 및 전시문화 활성화 등 요소요소마다 연계성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볼거리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기도 한데, 이날의 토론회 역시 일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성도 컸지만 불과 2시간이라는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수시탐포럼'

군산시 대학로342(26빌딩807호)
T.063)465-6615



서울에서 암세포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다니시던 아버지.

그날 오전 6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야자 대신 저녁밥 하는 '고딩' 아들 23]
할아버지와 마지막 식사

글 배지영(시민기자)
okbjy@hanmail.net

제규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보충수업과 야자, 두 달 반 동안 고민한 제규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정규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하고 싶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봄부터 식구들 저녁밥을 짓는 제규는 지금 2학년입니다. 이 글은 입시공부 바깥에서 삶을 찾아가는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기자 말

“오늘 낮 12시에 수산리(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주꾸미 샤브샤브 먹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오세요. 늦으면 주꾸미가 수영하고 난 물에 라면만 먹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남편은 '강호병·고옥희님 자손들'이라는 식구들 '밴드'에 글을 올렸다.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았다. 남편은 개의치 않았다. 올 사람은 다 오니까. 남편은 큰시누이가 사오라는 채소 몇 가지를 샀다. 샤브샤브에 들어갈 쇠고기는 넉넉하게 샀다. 어시장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갓 잡은 주꾸미도 5kg 샀다.

수산리(시가)에 갔더니 어머니만 거실에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 아저씨와 영남(제규의 사촌형, 큰시누이의 아들)이랑 셋이서 텃밭에다 생강을 심는 중이라고 했다. 남편은 곧바로 부엌으로 갔다. 제규도 장바 온 돈가스와 샐러드 재료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아기 낳은 지 열흘 된 형수님한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셰프님, 이거 시칠까요(씻을까요)?”

뒤늦게 온 작은시누이가 샐러드를 만드는 제규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목적은 따로 있었다. “제규야, 고모는 언제 초대할 거야?”라고 수없이 물었던 작은시누이는 조카가 한 음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릇에 싸가지고

친구들한테 갈 예정. 큰시누이는 제규가 공들여서 한 음식을 왜 갖다 주느냐며 “안 돼. 우리 식구 먹을 거여”라고 했다.

음식을 못 하는 나는 '투명인간'. 부엌에서는 길 자리가 없다. 세 살 먹은 은성(조카 영남의 딸)이한테 갔다. 은성이는 나한테 색종이를 내밀었다. 아들아들한 목소리로 “hammer, 개구이(리) 접어요”라고 했다. 못 접는다. 그러나 '다재다능한 할머니'에 대한 야망이 있는 나는 은성에게 그 사실을 들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종이학을 접었다.

밥 먹을 준비를 다한 남편은 밥상을 차렸다. 몇 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한 아버지는 바닥에 앉지 못 한다. 그래서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다. 친척 아저씨도 있으니까 밥상을 하나 더 차렸다. 남편은 끓는 육수에 쇠고기와 주꾸미를 익혔다. 접시에 담아서 아버지한테 먼저 드렸다. 아버지는 당신의 증손주 은성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일요일에 남편이 차린 밥상은 실패, 아버지는 통 먹지 못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는 주꾸미도, 쇠고기도 먹었다. 어머니 눈치를 살피면서 “술 한 잔 해야 쓰겠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샤브샤브 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 두 잔을 마셨다. 큰시누이는 부엌으로 가서 살아있는 주꾸미를 잘게 탕 쳐서 '탕탕이'를 만들어왔다.

“좋다. 부드러워.”

아버지가 '탕탕이'를 먹으며 말했다. 아버지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는 음식을 아주아주 천천히 먹었다. 여덟 살 먹은 꽃차남은 세 살짜리 은성이 앞에서 삼촌 행세를 제대로 했다. 밥상을 보자마자 불꽃같은 성깔로 “먹을 게 없어”라고 투정 부려야 하는데 참고 있었다. 제 아빠가 샤브샤브 국물에 라면을 끓이자 그나마 좀 먹었다.

지난 주처럼,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누웠다. 오전 내내 생강을 심고, 점심에는 반주를 곁들였으니까 노곤하리라 짐작했다. 친척 아저씨는 돌아갔다. 조카 영남은 은성과 꽃차남을 데리고 안방으로 갔다. 제규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자리를 잡았다. 나는 밥상을 치우는 남편에게 쉬라고 했다. 남편은 설거지만 남겨두고 들어갔다.



마지막일 줄 몰랐던 마지막 식사.

“아이고, 우리 배지영이가 어떤 일이여! 설거지를 다 하고?”

큰시누이가 웃으면서 물었다. 아, 억울하다. 나도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 차려준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하는 편인데. “나도 좀 해요”라고 우기지는 못 하겠다. 우리 집 김장김치는 십 수 년째 큰시누이가 담가주고 있다. 철철이 오이소박이, 열무, 물김치, 깻잎 장아찌를 담가주고, 각종 양념을 챙겨주는 사람도 큰시누이니까. 자주, 함께 밥 먹는 사이기도 하고.

큰시누이는 제규를 불러서는 “고모랑 생채하고 깍두기 만들자”고 했다. 두 사람은 식탁 양쪽에 마주보고 섰다. 큰시누이는 제규한테 칼질을 가르쳤다. 칼을 뒤에서 앞으로 미는 듯이 살살살 움직이라고 했다. 무조건 칼질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면서, 제규가 칼질 속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간파한 걸까.

“제규야, 고모 친구 중에 요리사가 있어. 서울 신라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한 사람이여.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이 오십 넘으면 설 자리가 없드라. 올 디 갈 디 없으니까, 지금은 군산까지 내려와서 일해. 가가 처음 주방 들어갔을 때는 프라인팬으로도 황 머리도 맞았디야. 어떤 식당은 양파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까라고도 한디야.

고모는 있지, 우리 조카가 (요리를)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어. 고모는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음식 하는 게 좋거든. 근데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 남한테 먹이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냐? 요리하는 거 좋으면, 느 아버지처럼 해. 집하고 급식소에서만 하면 되지. 요새는 잘 되는 음식점도 많아가는 참이라, 식당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여.”

큰시누이는 제규한테 요리를 업으로 삼지 말라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겨울 무와 봄 무의 차이를 알려줬다. 시장에서 무를 사다가 되도록 얇게 써는 연습을 하라고 했다. “포 뜯 때도 감각이 있어. 칼이 여기까지 들어가는구나를 익혀”라고 했다. 생채와 깍두기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었다.

깍두기를 버무릴 때, 큰시누이는 비닐장갑을 끼려는 제규한테 처음으로 엄하게 말했다. 맨손으로 해야지 손맛이 난다고. 비닐장갑이 꼭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라면서. 제규한테 “지네 아빠 닮아서 손은 겁나게 크네” 기특해하면서도 “저 어린 손, 아려서 어찌냐”고 걱정했다. 그녀는 진짜 요리는 치우면서 음식 하는 거라며 중간 중간 부엌을 정리했다.

“무슨 수업이 그래요? 참 일관성이 없어. 제규한테 요리는 하지 말라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요?”

나는 큰시누이한테 항의했다. 그녀는 막 웃었다. 머쓱한지, 나보고 김치 통 좀 찾자고 했다. 우리 집, 아주버님 집, 작은시누이 집, 큰시누이 집, 큰조카네 집, 수산리 부모님 집, 모두 해서 여섯 집. 깍두기와 생채를 각각 담아야 하니까 김치 통 12개가 필요했다. 늘 하는 소리, 큰시누이는 “가져가면 통 좀 가져와”라면서 김치를 나누어 담았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셨던 아버지는 일어났다. 거동이 불편해도 방바닥을 닦고 다니던 어머니가 부엌으로 왔다. 큰시누이는 “엄마, 이거 제규가 담은 생채야. 먹어 봐요. 맛있게 됐어”라고 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어머니가 마다하지 않고 먹었다. 큰시누이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온 아버지한테도 깍두기를 권했다.

제규는 큰고모가 가르쳐준대로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깍두기를 버무렸다.



제규는 큰고모한테 깍두기와 생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아빠, 손주가 담은 거니까 먹어 봐요. 양념은 진짜 잘 됐는데 무에 심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제규와 큰시누이가 만든 생채와 깍두기를 싸들고 부모님 집을 나섰다. “저희 갈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느 엄마 힘드니까 우애 있게 지내야 써”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리여, 고맙다. 어서 가서 쉬어라”고 했다.

5월 1일 일요일. 우리는 수산리(시가)에 갈 수 없었다. 군산의료원에 있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나흘 전 아침



제사 준비하던 아버지.



아버지가 심어두고 간 열무가 자랐다. 큰시누이는 김치를 담가면서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김치여라고 했다.

에 하혈을 심하게 해서 입원한 상태. 발은 차가워져갔지만 혈색은 나쁘지 않았다. 밤늦게 문병 온 친척 어른이 “이러다가 좋아질 수도 있어. 금방 가시진 않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라고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5월 2일 오전 1시쯤. 시누이들이 “애들 학교 보내야지”라면서 우리 부부한테 자고 오라고 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먹을 국을 끓이고 반찬을 했다. 나는 씻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때 작은시누이한테 “바로 와”라는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맥박과 심박이 느려지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한테 한없이 고마웠던 마음을 전했다. 듣고 계실 테니까.

그날 오전 6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 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봄놀이를 가지 못 했다. 서운해도, 화가 나도, “허허” 웃고 살아온 인생. 이웃들에게 5만 원을 희사하고는 거실에 있는 노래방 기계를 켰다. 흥겹게 노래를 불렀던 분이 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도 꼬추가 떨어질 일이 없어”라면서 음식을 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갔다.

아버지가 심어놓고 간 열무와 양파는 잘 자랐다. 큰시누이는 그걸 뽑아서 김치를 담갔다. 그녀는 “아빠가 주는 마지막 김치여”라면서 나눠주었다. 2주가 지난 주말에는 새로 짠 참기름을 주면서 “아빠가 주는 마지막 기름이여”라고 했다. 다진 마늘을 냉동실에 넣고 두고두고 먹으라며 “아빠가 주는 마지막 마늘이여”라고 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음식만 남겨준 게 아니다. 아내를 아끼고, 새끼들을 예뻐하고, 이웃, 친구들과 유쾌하게 지냈던 당신의 유전자도 물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줄곧 남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산다. 지난해에 고등학생이 된 큰애는 스스로 아침밥을 차려먹고 학교에 간다. 저녁에는 식구들 밥을 차린다. 제 할아버지처럼 친구들을 불러와서 밥을 해 먹인다.

“저 세상에서 아빠가 뭐 하고 지내실 것 같아? 이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지내실 거야. 지나는 사람 있으면, ‘어이!’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하고, 노래하고, 술 드시면서 유쾌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자. 재밌게 지내자.”

작은시누이가 말했다. 울컥울컥 솟던 내 눈물이 바로 마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 같은 근사한 사람을 <조선 세프 서유구>에서 만났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쓴 사람. 우리 아버지 강호병님보다 170여 년 앞서 태어났다. 명문가 출신, 그러나 서유구도, 그의 할아버지도 직접 음식을 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뒀을 때, 서유구는 이렇게 썼다.

“좋은 집안이거나 먹고살 만한 집안에는 반드시 인품이 좋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을 버는 재주를 가진 인내심과 희생정신이 강한 남다른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아버지의 덕과 수고로 생기는 혜택은 아들인 아비보다 손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서씨 집안도 다르지 않다.”



일사종다 바람분다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 이야기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빗줄기가 먼지를 씻어낸 화창한 6월의 마지막 토요일. 군산시 영화동의 영화시장은 말끔하게 세수한 얼굴처럼 생기가 돌고 있다. 몇십년 동안 시장을 지켜왔던 채소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지만, 마이크와 앰프, 각종 행사 소품을 나르는 움직임이 연신 활기차고 있다. “금방 잔치 시작할 거잖아. 그거 본게,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고 마음이 바쁘네잉.” 곧 우리들의 잔치가 시작된다.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의 여는 날 잔치다.

영화시장은 해방 이후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문화의 바람을 모두 품어 안으며 크게 변창했던 골목 시장이다. 1990년대 후반, 중앙로의 시청이 자리를 옮기고, 주변의 주택들이 헐리면서 영화시장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에는 빈 점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터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있다.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은 그 상인들의 서랍 속에, 앨범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진들을 꺼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사진전을 준비한 띄움(대표:이주연)은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전라북도문화재단, 그리고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 <골목시장의 다시 찾은 봄>으로 영화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기획:이주연 강사:김규영,조은옥) 현재 영화시장은 군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부딪칠 수도 있는 사



람들 사이에서 [띄움]은 예술이라는 매개자로 들어가 화합과 활성의 바람이 되고자 한다.

띄움은 지난 봄부터 시장 골목을 다니며 상인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한 조각씩 모아오고 있다. 앞으로 들고 모아야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지만, 먼저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눈으로 확인시켜보고 싶었다. 우선 오랫동안 쳐박아 두었던 사진들을 꺼내어 그 사진에 얹힌 개인의 이야기, 시장의 이야기, 세월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진과 이야기를 다른 곳 이 아닌 그들의 삶터인 영화시장 골목에서 나눠보고자 하였다.

시장상인들이 함께 놀러갔던 옛 사진을 구하여 처음 보여드렸을 때, 시장의 할머니들은 사진 앞에 머리를 맞대고 보면서 무릎을 쳤다.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으며 이름을 불러보았다. 사진전의 표지 사진이 된 '1965년 충남 수덕사' 사진을 들여다보던 오래된 영화시장 상인들은 반가움에 환하게 웃기도 하고,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하기도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이제는 변해버린 얼굴들 혹은 볼 수 없는 얼굴들 속에서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본다. 시장에 없는 사람도, 사진에 없는 사람도, 시장에 걸린 한 장의 사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다. 그들만의 사진은 시간을 엮고 세월의 이야기, 나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영화시장에 어수룩한 신바람 불다
얼새 종네 아 종네 손님이지
에수라 영화시장이로구나

사진을 확대하여 시장 골목 천장 기둥에 하나씩 달아 거는 날, 상인들은 다시 모여들었다. 바쁜 장사자리를 털고 나와 사진들을 붙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의 모습, 가게의 모습, 결혼식 모습, 아이들 모습 모두가 귀한 사진이었다. 상인들은 스스로 사다리를 꺼내고, 거미줄을 털고, 사진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네 하며 훈수를 두며 사진전 준비를 함께 하였다.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을 여는 날. 신명나는 장구가락이 시장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 채소를 다듬던 손도, 생선을 진열하던 손도 털고 어깨장단을 추며 길놀이(장구 유점숙)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다. 사진전의 주인공인 영화시장 상인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색색의 리본을 함께 자르며 사진전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민요사랑회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흥겹고(최경구, 이경숙, 오윤숙) 팀명 문화기획 평비재의 포크기타 소리도 즐겁다(조역연). 덩실덩실 장단에 몸을 맡긴다. 무릎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며 춤을 춘다. 숨이 가빠 주저앉기도 하지만 박자를 맞추는 박수를 멈추지 않는다. 오랜만에 고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서본다. 시장 골목골목에 걸린 사진들을 돌아보고 사진에 얹힌 이야기들도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남는 사진에 스티커도 붙여보았다.

최고 인기상은 대우수퍼의 1987년 사진이다. 80년에 새로 지어올린 가게 앞에서 찍은 것으로 그 전의 가게는 낡작하고 비도 많이 썼더라. 다음 인기상은 건여물상회의 1972년 사진이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된 아들이 2-3살일 때, 지금은 뽀빠이식당이 된 건너편 플라스틱 가게 앞에서 노는 것을 영화시장에 살던 미군이 찍어준 사진이라. 중국집 영화원의 사장님 내외의 젊은 시절 사진도 인기상에 뽑혔다. 중학교 졸업할 때 교복입고 찍은 사진과 영화배우같은 모습의 흑백사

진이다. 영화시장에 제일 오래된 정희부식 할머니가 20대에 친구와 '정다움계' 찍은 사진도 인기가 높았다. 그 외에도 단골손님과 찍은 안젤라분식, 오래전 가게 모습의 영진부식, 멋쟁이답게 꾸민 삼한부식, 아이들과 찍은 우리수퍼 사진 등도 큰 관심을 받았다.

신명나는 사진전 여는날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흥겨운 영화시장의 신바람은 지금부터 신나게 불기 시작할 것이다.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은 영화시장 골목에서 7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미처 꺼내보지 못한 사진들도 다시 모아서 10월에 두 번째 영화시장 신바람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영화시장의 사진과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군산 시민분들의 출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규영 010-3847-6453 / kimkyooyoung@hotmail.com)
글: 띄움문화기획자 김규영

| Editorial Design By 임유진



이당미술관에서 군산 원도심권 사진전 열려

군산시 영화동에서 발견한 미학 vs 긍정의 이미지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영화동 street-신석호
space and time in gunsan-김성윤
그저 지나간다-민경배

영화동 혹은 파라다이스-김영경
영화동 파사드-양지영



군산 원도심권의 시간과 공간을 조망하는 사진전(7월 9일~8월 31일)이 열리고 있다. 전시 장소는 군산시 영화동 이당미술관(옛 영화목욕탕)과 인근 거리 일대. 감독은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신석호 작가가 맡았다. 주제는 한국 근대사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역사를 지닌 동네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동 사진전〉으로 정했다 한다.

영화동(永和洞)은 군산 개항(1899) 전까지 옥구군 북면(구영리, 내영리, 강변리 일부)에 속한 아늑한 어촌이었다. 그 후 1910년 신설된 군산부(群山府)에 편입되어 전주통, 대화정이 된다. 광복 후 1949년 군산시 영화동으로 개칭된다. 1973년 중앙로 1가동 담당 법정동이 됐다. 이후 1998년 중미동 관할을 받다가 2008년 2월 월명동 담당 법정동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군산 개항 이후, 영화동은 일제에 의해 조성된 격자형 도로망(본정통, 전주통, 대화정, 옥정, 명치정과 이를 가르는 1조통~9조통)의 중심지가 된다. 채만식은 소설 〈탁류〉에서 군산 공원 아랫동네(금동), 월명산 아래 주택단지(월명동) 등과 함께 문화도시 모습을 갖춘 지역으로 묘사한다. 1924년 기록에 따르면 당시 땅값도 본정통(해망로)과 함께 군산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 영화동은 일본인 상가 밀집지역으로 탄압과 수탈의 1번지 역할을 하였다. 하오리(羽織) 차림의 일본인과 게다가 소리가 요란했던 거리는 광복(1945) 후 미군과 양공주



가 활보하는 거리가 된다. 유흥업소는 미군 전용 바(서양식 술집) 4~5곳과 게임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을 갖춘 관광호텔이 있었다. 외항선이 드나드는 내항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커피 양담배 등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기능도 하였다.

허름한 창고와 담벼락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
최근 영화동은 월명동과 더불어 군산 근대문화역사 지구의 주요 축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도시 확장 탓으로 번두리로 밀려난 느낌을 준다. 이당미술관은 지난해 5월 버려진 목욕탕을 개보수해서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신석호 작가는 “영화동의 특수성과 그 이후 삶의 보편성에 주목해 ‘동네 이름’을 앞세운 사진전을 기획했다.”라고 전한다.

신 감독은 군산 아트리지던시 디렉터(2010~2011)를 거치는 등 지역 기반 예술프로젝트를 다수 기획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는 지역적 삶의 특수성에 기반을 긍정적 요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러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연구나 도시 재생에서 예술가의 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밝힌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작가는 신 감독 포함하며 총 10명이다. 도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작업을 펼쳐온 사진작가 5명(김영경, 양지영, 전영석, 김성윤, 최창재 등)과 영상미디어 실험작가 정상용, 그리고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 서울대 대학원 박애란, 군산지역 영상창작단 큐오브이 등이 초청작가로 참여했다. 작품작은 모두 70여 점. 허름한 창고와 담벼락에도 전시되고 있어 거리 자체가 이채롭게 느껴진다.

아래는 신석호 감독이 메일로 보내온 〈영화동 사진전〉 작품 설명을 옮겨 적었다.

사진-예술작업은 기록이자 해석의 작업입니다. 공간은 주제와 타자가 조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현실이 부딪치거나 어그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매체의 특성과 공간의 조건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작업에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전시장 전시'와 '거리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작업은 거리와 공간의 퇴적된 층위에 주목하거나 또는 거리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온 인물들에 관심을 가진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변화의 와중에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탐색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윤의 'space and time in gunsan(군산의 시간과 공간)'은 color-separation(색채 분리)이라는 사진 인화의 장치를 통해 시간의 축적 혹은 소멸 속에서 형성된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애란이 관심 가진 군산-영화동 사람들-'modern people(근대 사람들)'은 이 거리와 세월을 같이한 공간과 올드 맨들을 포착한 것으로 흑백으로 인화한 사진의 질감은 마치 소설이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의 스틸-컷을 떠올리는 이미지로 그 앞뒤의 많은 얘기를 상상하게 합니다.

같은 지점에서 정상용의 '영화동 time-across(시간-교차)'는 영화동 시장(市場) 풍경을 시간을 두고 촬영한 영상에서 추출한 여러 이미지를 중첩함으로써 시간의 축적 속에 드러나는 시장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리와 공간작업의 측면에서 양지영은 영화동 건물의 외관을 기록한 '영화동 파사드'와 거리 풍경을 담은 '풍경의 숨'이라는 두 버전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지영의 영화동 파사드는 외래적 근대도시로 형성된 군산 영화동이 여러 역사적 과정 안에서 변모되어 드러나는 건물-거리의 생활기록부 같은 작업이고, 풍경의 숨은 거리 경관과 풍경에 대한 감각적 작업입니다. 이러한 양지영의 작업은 한편으로는 도시에 대한 기록적 가치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물질적 시선으로 경관들을 사유합니다. 도시와 거리이미지를 감각적 시선으로 작업했다는 점에서 김영경의 작업도 궤를 같이합니다.

김영경은 군산이라는 도시의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현상하는 무거운 주제보다는 자연적 감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영화동의 시각적 대상들과 조우

합니다. 김영경의 '영화동 혹은 파라다이스' 시리즈는 가벼움, 경쾌함, 익숙함 등이 혼재한 다채로운 감정의 층위에서 보다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들로 영화동-군산을 읽어갑니다.

반면 최창재는 군산을 들어오다 보면 만나는 현대식 고층아파트 단지와 험하고 낡은 구도심의 창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로 시선을 대비시킵니다. 이러한 대비는 도시의 생성과 쇠퇴의 유기적 과정에서 한 때 번성했을 대형 창고의 허름한 내부는 현재 치솟아 올라간 고층아파트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군산 도시 이해를 식민지 근대역사와는 좀 다른 결에서 작업한 전영석의 작업은 바다를 끼고 살아온 일상의 생산과 산업의 현장을 기록한 'gunsan scope(군산 광경)'라는 제목으로 현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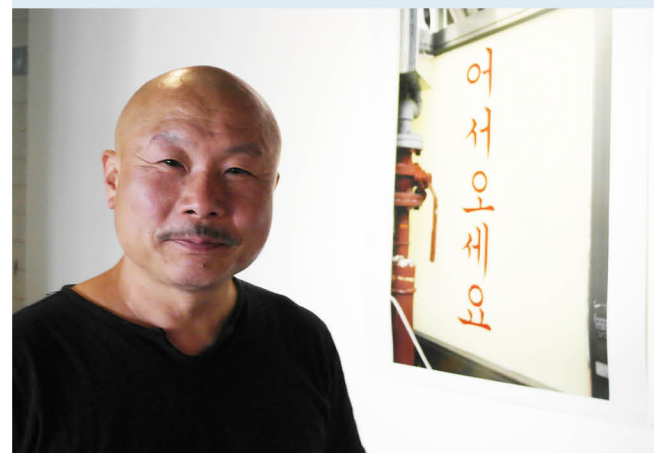
금암동 짬보선창에 위치한 선박 수리공장과 기술자들을 기록하고 포착한 사진들은 군산의 식민지 근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근대라는 도시의 다른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직 사회학자이자 사진가로서 작업하고 있는 민경배의 사진



전반적으로 군산-영화동전의 작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있는 군산-영화동의 모습들 속에서 변화하는 것과 남겨진 것들이 혼재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아마도 낡은 근대의 이미지가 고급한 근대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부침의 역사적 과정에 끊임없이 비주체 비존재로 내몰려 왔던 트라우마를 견어낼 삶의 실재들일 것입니다.

사회적 과정에 결합하거나 도시연구와 연관하는 문화와 예술이 곧바로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거나 정체를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소 촉박하게 기획된 이번 전시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자본이나 경제에 종속된 문화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삶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미학적 언어와 연결지음으로써 여타 도시 연구나 지역연구에 함께하거나 경합할 근거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은 '그저 지나간다' 시리즈로 현상합니다. 그저 지나간다, 시리즈 사진은 정비된 경관과 삶의 실재가 어긋나거나 여행자의 덤덤한 발걸음과 낡은 거리가 미끄러지는 이미지들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포착한 것들로 근대문화 도시 군산과 대비되는 근대성 혹은 근대적 삶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자이자 작가로서 참여한 신석호의 '영화동 ghost-night(유령-밤)'은 영화동 골목의 밤 풍경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동 골목의 밤 풍경은 대낮의 상기된 모습과는 다른 적막하거나 소소한 모습으로 이 거리의 다른 속살 같은 것을 드러냅니다.



짧은 시간 속에 목표를 내재화하거나 되새김질할 여지도 없이 진행되었지만 노력한 작가들의 시선 속에서 몇몇 실마리는 찾아졌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정 속에 작업해 주신 작가들과 이 작업을 위해 도움을 주신 영화동 주민들과 미술관 관계자들, 그리고 군산문화원 이진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덧붙임: 미술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문외는 영화동 이당미술관 (063-446-5903)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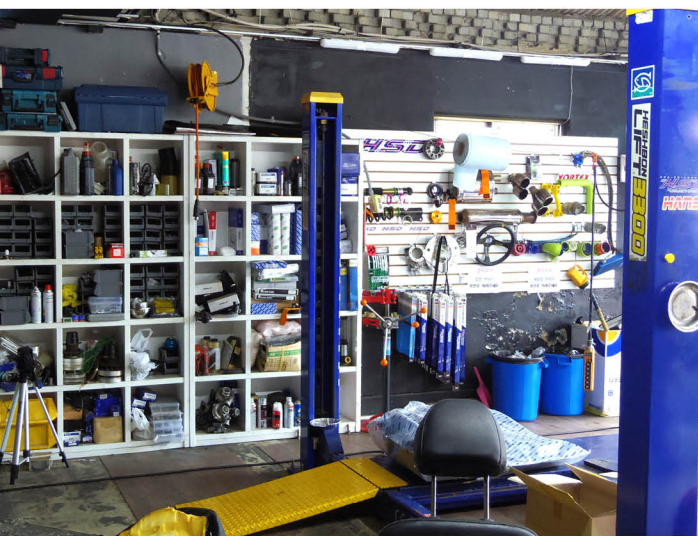


튜닝이라면 제가
전문가 소리 좀 듣자요^^

한스 카 케어 Hans Car care

한창희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카센터 '한스 카 케어'의 한창희 대표(31)는 어려서부터 기계를 분해하여 조립하거나 고장을 수리하는 일에 소질을 보이더니 적성에 맞춰 기계공고 전기전자과와 군장대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총각 사장님이다. 그의 부친께서는 오랜 기간 오락실을 경영하셨는데 때로 오락기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중학생이던 한 대표가 고쳐 놓을 정도로 기계적 매커니즘을 쉽게 이해하는 선천적 소질은 결국 자동차 정비 관련 직업을 갖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한 대표는 유학을 가기도 했다. 군장대 1학년을 다니던 중 미국령인 '괌'에서 잠시 거주한 적도 있었는데 그곳의 직업전문학교에서 1년간 자동차 관련 공부를 수료한 것이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 재학 중에 산업기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자동차학과 공부는 생각만큼 쉽지 않아 첨엔 힘들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더해졌다. 정비와 더불어 특히 튜닝 분야에 관심이 컸던 그는 타 공업사와 카센터 등에 근무하는 동안 실무를 더욱 꼼꼼히 익혔고 지난 2013년도 드디어 영화동에 자신의 카센터 '한스 카 케어'(이하 한스카)를 오픈하게 된다.

한스카에는 부품이나 오일 교환 정비를 받으려는 고객에서부터 특히 튜닝을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카레이싱 동호회 고객들이다. 약 3년간의 튜닝 경력을 보유한 한 대표의 튜닝 솜씨는 그方面에서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어 이



'한스 카 케어'
군산시 영화동 6-6
T.070-7527-5128
HP.010-9458-5433

제는 레이싱 고객만도 20여명이 넘을 정도다. 튜닝이란 순정상태의 자동차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내, 외관이나 구조, 성능 등을 변형, 개조하는 것을 일컫는데, 레이싱 카의 경우 공기저항을 줄이고 서스펜션과 쿨링 시스템 등을 보충 장착하는 것이 필수처럼 되어 있고, 앞 범퍼의 에어뎀, 후미의 스포일러를 비롯해서 터빈을 장착한다거나 쿨링, 미션 등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휠과 타이어, 브레이크 등도 레이싱에 적합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차마다 모든 튜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튜닝을 하기 전에 앞서 반드시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으로는 보통 색상 변경, 에어뎀, 범퍼, 배

기관팁, 카오디오, 내부방음재, 루프박스, 루프캐리어, 루프백, 롤바, 선루프 등을 들 수 있고, 사용목적에 따라 제원이 변경되는 빌드업 튜닝이나 튜업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과 검사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순정품이 아닌 미인증 HID, LED 설치나 등화 색상을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튜닝으로 레이싱에 참여하는 아마추어 동호회 고객들과 매년 3월~10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참관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정비 차량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 정비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실력이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 말 할 수 없이 기분이 좋으며 간혹 경기 중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 사람의 운전자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말도 들려준다.

평소 정비를 하면서 한 대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이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다.

한번이라도 다녀간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정비가 필수로서 친절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장 자격에도 도전할 계획이라는 그는 자동차 정비 직업을 택한 것을 백번 잘 한 일로 여기고 있다면서 작업 도중 이마의 땀을 씻으며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늘푸른도서관복스타트사업

사랑해요 도서관!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2016 상반기 결산으로 알아보는 군산시립도서관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군산시립도서관은 총 17개소(본관, 분관 3개소, 작은 도서관 13개소)로 시내 곳곳에 위치해 지역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교육·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문화강좌 및 행사를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공간 운영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구입, 어린이 참여행사 운영 등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도서관 이용자는 총 43만3829명으로 이는 본관 및 분관(늘푸른·설림)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밤 10시까지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고, 야간 열람실 개방 및 야간 문화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킨 결과이다.

군산시 도서관의 전체 도서는 47만3921권(2016. 6월 현재)으로, 2016년 도서구입비는 2억1천9백만원(전년대비 6천9백만원 증액)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신간도서 1만2045권과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378종을 구입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희망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시립도서관은 유·아동자료실 확장공사 및 주차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상설 도서교환 코너를 신설하는 등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9년 개관이후 도서관 이용자 증가 및 장서를 확충함에 따라 유·아동 자료실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실 확충공사는 기존 자료실을 약100㎡ 확장해 479.5㎡(143평)의 면적을 확보하고, 확장된 공간에 열람좌석 및 서가를 확충해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차라인 도색 및 스토퍼 설치, 임산부 주차면 신설 등 주차장 보강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본관 입구의 이야기방을 개조한 「자율상설 도서교환 코너」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비치된 도서 중 교환을 원하는 도서와 개인소장 도서를 1:1대로 맞교환 할 수 있으며, 6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독서의식 고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군산시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생활 증대와 시민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방학특강,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취미와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방학특강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운영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월에 실시한 겨울방학특강에는 총 48강좌에 3,055명이 참여했고,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반기 문화강좌에는 총 65강좌, 1만2591명이 참여했다.

도서관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좌 후 설문조사, 타도서관 벤치마킹 등으로 만족도를 높여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 완화를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자율상설도서교환코너



- | | |
|-------------------|------------------|
| 01 사람책재능기부강연 | 05 시립도서관책나눔도서관장터 |
| 02 늘푸른도서관부모교육특강 | 06 아동자료실확장공사 |
| 03 설림도서관도서관과함께책읽기 | 07 외고대1멘토링재능기부 |
| 04 늘푸른도서관책놀이활동 | 08 시립도서관가정의달행사 |

독서커뮤니티와 재능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군산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독서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총 16개(본관 8개, 늘푸른 6개, 설림 2개)의 독서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배우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총 2,685명이 참여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를 비롯해 시낭송회, 영어독서회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과 토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주체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 예로 2015년부터 진행된 사람책 강연은 '사람이 책이다'라는 주제로 개인의 지식·재능·경험을 공유한다. 상반기에는 부모교육, 취미생활, 그림책가이드 등의 주제로 총 10회의 강연을 실시해 147명이 참여했다. 또한 늘푸른도서관에서는 영어스토리텔링과 전북 외고 학생들의 초등학교 1:1 학습멘토링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6명이 참여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행사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주간행사(4월), 가정의 달 행사(5월), 독서의 달 행사(9월), 송년행사(12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4월 도서관주간 문화행사는 시립·늘푸른·설림도서관에서 16개의 체험, 공연, 전시, 강연 등을 진행해 총1,508명이 참여해 서로의 애장도서를 나누며 나누는 기쁨과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책나눔 도서관교환장터」로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어린이경제교실, 매직그림자 레이저쇼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 간 소통과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양한 문화행사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의 계기가 되어 시민의 지적 욕구 충족과 지역의 문화중심체로서 도서관의 역할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

어린이중심 도서관인 늘푸른도서관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북스타트 사업은 3~36개월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부모교육과 책놀이 활동을 병행 운영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상반기 북스타트 사업은 책꾸러미 배부(영·유아 367명), 자원활동가 소양교육(2회, 26명), 책놀이 활동(10회, 150명)이 진행됐으며, 하반기에는 책놀이활동(4기)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모세스영어원을 방문해 책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독서진흥 내실화

시립도서관은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2016년 상반기 5개사업, 3천8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길위의 인문학(한국도서관협회), 작은 도서관 순회사 서지원 공모사업(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전라북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사업(국립장애인도서관) 등이 있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하반기에도 군산시립도서관은 어린이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주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키워주며 성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시민의 지식정보 및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는 도서관 홈페이지 (lib.gunsan.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군산시, 내항 해양공원 조성공사 착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 행정력 공조 성과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내항해양공원 조성공사에 착공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단계에서 항만부지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예산절감과 함께 관광객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시는 항만부지 관리부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과 협의를 통해 장미동 1-4번지에 2,300㎡ 규모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를 해수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보상 없이 확보해 절감된 예산을 선도지역내에 재투자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주요시설물 등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에 수목식재, 포토벽 조성, 막구조물, 광장,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야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토벽 조성을 위해 내달 19일까지 군산여행 추억 사진 공모로 포토벽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류중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군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쉼터공간을 확보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항 해양공원이 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가정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생리대)을 무료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자녀 및 가정위탁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여성 청소년(만10세~18세) 약 500명을 대상으로 5개월분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군산시 내 희망배송지로 택배를 통해 위생용품 배송을 한다. 또한 매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위생용품을 1차적으로 우선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위생용품 지원 신청을 받아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의 위생용품 지원은 군산시 청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청원 한사랑 나눔’ 모금액 1,200만원으로 지원되어 의미가 크다. 전순미 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시 청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첫 발을 내딛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청소년기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펼쳐진다.

30일(토) 오후 4시 해망굴 일원에서

군산시 해신동 해망굴 일원에서 오는 30일(토) 오후 4시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펼쳐진다. ‘신나는 예술버스’는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나눔을 위해 전북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음악과 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국악, 품바, 가요콘서트, 댄스 등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취약지역에 찾아가 맞춤형 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신나는 예술버스사업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및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 안전 실천이 어린이 행복의 시작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 어린이 및 학부모에 큰 호응

군산시는 지난 5월 ‘어린이 안전 실천이 어린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어린이들이 안전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식도동 어린이 교통공원 내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개관했다. 시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개관을 통해 실내교육장과 야외체험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공원 내 다양한 부대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간과 어른들의 휴식공간까지 겸비함으로써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가족친화형 안전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개관 이후 지난 5~6월 두 달간 방문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1명보다 124%가 증가한 4,213명이 방문했다. 전주, 익산, 부여, 서천, 김제 등 군산과 인접한 여러 시군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지에서 체험예약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인기 만점의 전라북도 대표 어린이 안전체험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생활안전 체험관 ▲재난안전 체험관 ▲교통안전 체험관 ▲해양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이나 재난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어린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에서 5.0의 비교적 높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안전에 대한 커진 관심에 맞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히고 대피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체험은 여름철 바다나 계곡에서 물놀이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부터 구명조끼 착용법과 구명환 활용법 등을 체험하고 있다.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은 하루 3번(10시, 11시30분, 14시), 주말은 자유 관람으로 진행되며, 예약접수는 홈페이지(http://www.gstp.or.kr)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당일 체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관에 많이 찾아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스스로 안전을 배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군산시는 오는 29일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군산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 정비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새롭게 출범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건설교통국 및 27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합동정비를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시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정비 시 적발된 인도 위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하고, 특히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발족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광고물 점검을 실시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까지 8만2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으며, 7월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 한여름밤! 근대문화의 거리를 걷자~

군산야행(夜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오는 8월 13~14일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군산야행(夜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문동신 군산시장 주재로 국과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해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4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등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거점으로 연계한 문화유산 거리를 거닐며,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테마공연, 플리마켓, 체험활동 등 4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군 군악대·의장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공군 의장대 사열 시범, 시립예술단 음악회, 문화유산 등불거리 점등식, 금강야행 콘서트, 수시탑 야경 불빛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 진행되어 그 기대감이 더욱 크다. 『군산야행(夜行)』은 밤에 즐기는 지역 문화유산의 7가지 정취 7야(夜)를 주제로 - 야로(夜路, 밤에 걷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거리), -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 야화(夜花, 한 여름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 야경(夜景, 밤에 비추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등이 펼쳐진다.

■ 군산시, 임대보증금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군산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307세대에 26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억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현재 39세대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망동 희망루아파트와 LH에서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되면 계약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에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중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광태 주택행정과장은 “어려운 이웃이 보증금지원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국가 암검진 서둘러 받으세요.

올해 “썩수년도 출생자” 대상

군산시 보건소가 국민 사망률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가 암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무료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썩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중 ▲위암과 간암,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이 해당 된다. 대상자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산지역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한국병원, 차병원, 누가병원, 미듬내과, 속편한내과, 동서의원 등 29개소가 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꼭 검진을 받아야만 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만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검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7~8월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암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460-3268)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충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선유도 옛 이름은 군산도·고군산도 조선 후기 유배자들이 양반문화 전수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야미도, 신시도 등 6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6개가 유인도이며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등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최근 단등교(새만금방조제~무녀도) 개통으로 육지와도 연결됐다.

흔히 선유도로 통칭되는 고군산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에 '군산도(群山島)'라 불렸다. 군산도가 소개된 최초 기록은 고려 인종 원년(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으로 훗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고려는 해상 강국이었다. 하지만, 당시 바닷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서해 중부 바닷길 선유도의 중요성은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긍은 1123년 5월 28일 송나라 명주(지금의 Ningbo)에서 출발하여 6월 6일 군산도에 정박한다. 그는 군산도에 머물면서 관아를 비롯해 선박, 병사, 망주봉, 군산정, 송산행궁, 자복사, 오룡묘 등 당시 군산도 모습을 생생하게 담는다.

조선 태조 6년(1397) 선유도에 수군만호영이 설치된다. 이 수군진은 세종 때 군산으로 옮긴 후에도 선유도의 군사적 역할은 줄지 않는다. 선조 2년(1569)



망주봉 기슭에 수군기지가 다시 설치된다. 수군기지에는 절제사가 파견되어 임피, 옥구, 만경, 김제, 부안, 고창, 무장, 영광 등 8개 현 해상을 담당했다. 이 수군기지는 임진왜란 때 일시 폐쇄했다가 1600년 진말에 다시 설치한다. 우체국 뒤 산기슭 채소밭이 고군산진이 있던 진터다.

고군산(古群山)이란 명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처음 등장한다.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치닫던 선조 30년(1597) 9월 21일 자 일기에 '아침 일찍 출발하여 고군산도에 도착했다'라고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고군산(선유도)에 열이틀 동안(9월 21일~10월 3일) 머물면서 장계를 작성, 명량해전 승첩을 조정에 보고한다.

김종수 군산대 교수는 “인조 2년(1624

년) 군산도에 수군 진(鎭)을 설치하는데, 옥구현 진포에 있던 '군산진(群山鎭)'과 구별하기 위해 '고군산진'으로 부른 것 같다”고 추정한다. 같은 권역에 유사한 이름으로 수군진을 두 개나 설치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군산지역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군산이 조선 후기 유배지가 된 이유?

조선 후기에는 고군산도에 많은 유배인이 귀양(謫居)을 살았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각종 사료에서 확인된다. 유배 온 사람 중에는 당쟁의 격화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력을 잃은 왕족이나 양반층, 혹은 양인으로 5세에서 8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군산진 절제사 선정비

장희빈이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던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갑술환국) 때 이조참의였던 권중경(權重經)이 선유도로 위리안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1907년(광무 11) 이종태(李鍾台), 이상현(李商鉉), 김호락(金浩洛)까지 고군산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인물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군산이 유배지로 처음 지정된 시기는 인조 2년(1624년)으로 전해진다. 유배인이 많았던 이유는 첫째, 당쟁의 격화로 정치범 증가. 둘째, 관수(官守)가 없는 외딴 섬에 죄인을 배정하지 말라는 영조의 엄명(1728년). 셋째, 흉년에 쌀 2600가마를 국가에 기부하는 주민이 나올 정도로 부유했던 섬 등이었다. 이는 선유도가 풍요한 섬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유배의 섬으로 양반 후손이 많은 것처럼 선유도 역시 유배인 중에는 가정을 꾸려 후손을 남긴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유배인들은 고군산 원주민에게 학문과 사상, 의례와 절자, 생활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반 문화를 전수했을 것이다. '장자도에 가서 인물자랑 하지 말라!'는 풍설

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군산도에서 귀양살이하면서 글을 남긴 인물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정적이 많았던 이견장(1852~1898)이 유일하다. <명미당집>(明美堂集)과 <벽성기행>(碧城紀行)에 실린 <검소루>(劍嘯樓), <장구>(瘴虯), <노오편>(老烏篇) 등 8편의 한시가 전해진다. 그중 <장구>는 이견장 자신의 당시 심정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한말 정세를 고군산의 기후에 빗대어 표현한 주옥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교통 중심지

고군산군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합쳐지는 지역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이전부터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였다.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의 고속도로'라 표현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어주는 해상교통로는 세 갈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서해 북부 연안 항로, 두 번째는 서해 중부 횡단항로, 세 번째로 서해 남부 사단 항로를 꼽았다. 특히 연안 항로는 한반도 서

북쪽 연안과 중국 동북쪽 연안을 따라 항해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로 일찍부터 이용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와 남송의 교류가 왕성할 때는 군산도가 국제무역의 거점항구이자 국제외교의 관문으로 큰 번영을 누렸다. 고려 때 군산도 중심지였던 선유도 망주봉 아래에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유도 망주봉 주변의 송산행궁(崧山行宮)을 비롯해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群山亭), 바다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五龍廟), 자복사(資福寺), 관아 등 많은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왕릉과 송산행궁은 그 자체만으로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망주봉 주변에 순정자, 삼감청자 등 최상급의 청자편(片)과 백자편, 중국제 자기편, 기와편이 흩어져 있고, 고려 시대 최상급 청동거울(쌍룡 문경과 선경문경), 중국 송·원대 자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군산도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새만금시대를 앞둔 이때 군산도(선유도)를 중심으로 해양문화를 밝히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원과 연구를 토대로 천혜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접목해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활용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술과 담배 정말 끊어야 할까요?

지난달에는 사랑니를 빼는 것과 관련 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 사랑니를 빼는 것이 고통과 염증발생을 줄이는 길이다.'입니다.

사랑니를 빼기 전과 후에 술과 담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의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발치 전후로 한 달 동안 금주, 금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치 전에 한 달, 발치 후에 한 달 동안 금주, 금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담배는 끊었겠지요. 두 달 동안 술을 참을 만한 분이라면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분이시겠지요.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환자분에게 사랑니를 빼기위해 두 달 동안 흡연을 중지하라고 지시한다면, 환자분은 '어차피 두 달 금연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냥 계속 피자.' 이런 상태가 될 확률이 99.9% 이겠지요. 술도 마찬가지 이겠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사랑니 발치 또는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말씀드립니다. 수술 전 이틀, 수술 후 닷새 술을 마

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면 수술 전날, 수술 당일과 다음날은 반드시 금주하셔야 하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전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배의 경우 수술 당일부터 3-4일 정도는 금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수술을 위해서 두 달 동안 금주, 금연을 한다면 아주 좋겠지요. 이번 수술을 계기로 담배를 완전히 끊는다면 더욱 좋겠고요.

술과 면역력의 관계는 쉽게 이해되겠지만, 수술과 담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흡연을 중단하라고 하는 걸까요? 담배 연기에는 온갖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포의 분열과 재생을 저하시키는 성분들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이 잇몸과 점막의 세포활동을 억제시켜서 상처가 아무는 것이 느려지고 탄탄한 잇몸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입안에 상처가 정상적으로 아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잇몸이 건강한 탄탄함을 보이지 못하고 흐물흐물한 상태가 됩니다. 즉 꾹초분들은 잇몸 건강이 나쁘고 치주염이 더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폐암, 후두암 등을 피하고자 금연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70세 생일에 갈비를 잘근잘근 맛나게 씹기 위해서 금연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2: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지난 5월 919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카드 매출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째서 부당하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송씨가 친구들과 오리 백숙집에서 11만원어치 회식을 한 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백숙집 사장님 통장에는 수수료 5%가 제외된 104,500원이 입금됩니다. 문제는 식사대금 11만 원 중 1만원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고스란히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실제 식당주인의 몫은 10만원이므로 10만원의 5%인 5천원만 수수료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1만원에 대한 수수료 5백 원까지 식당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세청이 부담해야할 5백 원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소득도 아닌 세금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카드매출의 평균 1~5%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분에 대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신용카드 구매 시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로선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수익자인 국가가 국가 행정편의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부가

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는 카드수수료까지 물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가가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 (위 사례에서 1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Q. 안녕하세요 경암동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 진숙이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업종 변경(헤어샵)을 하게 되어 친한 언니와 같이 운영하려는데 언니와 저는 잘 알고 하니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업종 변경을 하고 사용을 계속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어떤 허락을 얻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전대차 계약서 가지고도 헤어샵 사업 자동록이 가능한지요?

A

임차인은 임대차한 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동의가 필요할 시 동의를 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일정공간을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임대를 놓는다”는 뜻에서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하한 많은 자본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임대한 공간의 일부를 전대차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적법한 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29조) 원칙적으로 전대차를 금지하며,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제632조).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전대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임차권 행사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교체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임대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전대차는 당사자간(박진숙씨와 언니)의 대차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종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는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됩니다.

니다.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지급 등 전대차상의 의무를 부담하나 권리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차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무단 전대된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차임청구권을 가지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 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지위에 부속시킨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없이도 전차인에 대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가지며 한편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숙씨가 궁금하게 여긴 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전대동의서(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000 (인)” 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헤어샵 공간 작은 부분에 네일샵을 운영토록 하는 것(shop in shop)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추후 더 이상 걱정을 아니 해도 되겠습니다.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불황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어 잘 버티시길 간절히 바라고 문의하신 박진숙씨도 사업 번창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민법 제629조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노공인중개사무소
(IS 부동산연구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도덕적 의무’라고 치켜세우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시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것이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이 이야기의 유래는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칼리시’ 1년 가까이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의 지원병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항복을 선택하게 되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리시의 항복 사절단, 그러나 점령자는 항복의 조건으로 “좋다, 모든 칼리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 도시의 시민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한다.” 칼리 시민들은 “누가 죽기를 자청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칼리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일어서서 이야기 하였다.

“자 칼레의 시민들이여 ... 나오라 ... 용기를 가지고.” 그러자 뒤 이어 교수형을 청하는 다섯 사람이 있었다. 시장과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 그렇게 여섯명이 결정되고 다음 날 속옷 차림에 목에는 밧줄을 걸고 교수대로 발길을 옮기는 여섯명의 사람들, 칼레시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려 했던, 그러나 이들이 처형되려는 순간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한 여섯명을 살려주게 되고, 이후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정신적 의무로 표현되곤 한다. 사회지도층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구성원들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 돼지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사회가 합리적으로 굴러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분 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여 말을 했고, 이에 기자들이 나 기획관이 말하는 민중이 누구냐는 질문에 “99%”라며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ytv 뉴스 중) 뭐, 영화 ‘내부자들’ 중 백윤식의 대사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짚어 대다가 알아서 조용해 질 겁니다.” 이 대사를 인용

했다는 것인데 ... 영화고 현실이고 모두가 다 시민을 개나 돼지로 우롱하는 모습은 똑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뉴스입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가호가 필요하다”며 이 뉴스를 보도 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 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진경준검사장의 뇌물수수혐의 구속,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비리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의 성추문 소식들 어찌면 삶의 모범이고 거울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의 범죄가 연일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이 되면, 늘 보다 엄격한 도덕적, 정신적 잣대가 그 들 주변에 놓여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며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슴아픈 말과 행동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갖추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발 대부분의 국민들만큼만이라도 성실하고 투명한 삶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군산시민예술촌 상설공연단 스릴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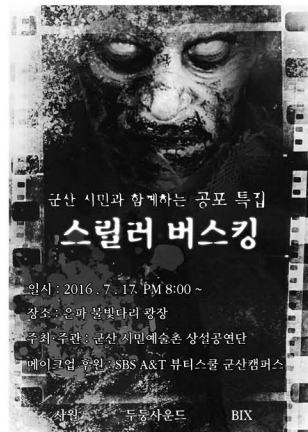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의 상설공연단이 7월17일 일요일 오후 8시 은파 물빛다리광장에서 더위를 식혀줄 오싹한 콘서트를 열었다.

한여름 밤의 더위를 가셔 줄 공포컨셉트의 공연은 군산시민예술촌의 상설공연단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정상의 밴드 두동사운드와 남스트리오 빅스, 청소년 여성댄스팀 사월이 함께 했다.

좀비 분장과 페이스페인팅으로 공연장 분위기를 더욱 공포스럽게 연출하고 공포영화가 아니어도 콘서트로 두어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박양기 촌장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같이 만드는 문화를 경험하며 여름밤 더위를 가시게 할 색다른 콘서트를 만들고자 스릴러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연을 보고자 밀려든 600여 관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시민예술촌의 의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공연자와 관객을 하나로 만드는 좀비분장을 받은 사람은 400여명 이었고 페이스페인팅을 받은 사람 또한 150여명 이상이였다.

호응에 힘입은 두 번째 스릴러버스킹이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 스릴러버스킹

일시: 2016. 8. 20(토) PM8:00~
장소: 은파 물빛다리 광장
주최·주관: 군산시민예술촌 상설공연단
메이크업후원: SBS ART A&T 뷰티스쿨 군산캠퍼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 중정길 17(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군산근대역사박물관 8월 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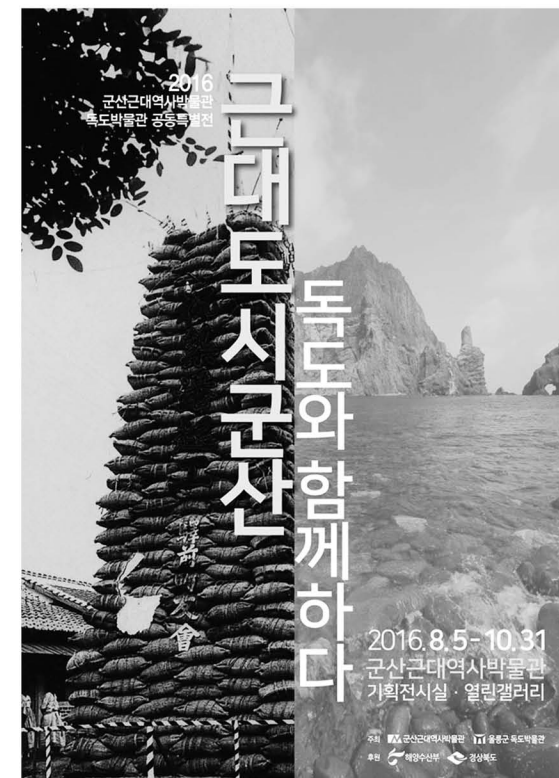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 “나라사랑 무궁화”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여름방학 8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에서는 2016년 4번째 기획전으로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展가 진행되며, 박물관의 분관인 근대미술관에서는 ‘나라사랑 무궁화’展이 개최된다.

8월 5일부터 선보이는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展은 울릉도 독도박물관과 함께하는 전시로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동해의 섬 독도를 일제에 맞서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서해의 군산에서 소개하고자 마련하였다.

전시공간은 1층과 3층 두 곳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전시내용은 독도의 생태와 역사를 소개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고지도, 고서를 통해 보여준다.

근대미술관에서는 ‘나라사랑 무궁화’展은 군산 ‘야행’夜行이 진행되는 8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되는데, 고대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시민과 관



람객에게 알리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독도展은 독도라는 특별한 공간을 군산에서 소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독도展과 무궁화展을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인식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시민과 관람객들이 느끼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81만 여명이 방문하였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매월 평균 6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의 활동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 명선이라는 청소년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 명선은 달그락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석 원장님은 서울에서 학원을 크게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님 지인의 소개로 원장님은 명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강석 원장님은 일년여 간 매주 두차례씩 명선의 수학 학습을 도와주셨습니다. 명선은 부족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원장님께 지도 받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려 노력하시던 원장님과 명선의 만남은 그렇게 한달, 두달이 지나고,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명선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두 번씩 달그락을 들렀고 현재 눈맞춤이라는 블로그단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선을 달그락에 오도록 소개해주신 이강휴 원장님(내과의사)께서도 명선의 학교 자퇴소식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강휴 선생님과 달그락달그락에서 명선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에 도움을 주신 정건희 소장님, 꾸준히 명선의 결정에 따라 학습지원을 해주신 이강석 원장님, 명선과 블로그단 활동을 함께하는 최미나 선생님, 명선이 이렇게 모두가 모여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명선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라고 이야기 하며, 검정고시는 조금 못 보아도 되니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들의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는 이강석 원장님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원활동가 그룹 '꿈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만나고 싶고, 청소년들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신 꿈청지기 선생님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 자치기구들의 활동지원자로 꾸준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달그락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번개찾집을 열었습니다.

대학생 이상훈 선생님은 돈을 모아 레몬청 재료들을 몇 달 전부터 나누어 기

부해주셨고, 최정민, 채연재, 신은미, 신숙희, 임화경, 김은주, 오지영 선생님은 가정일과 직장일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달그락에서 티켓을 만들고, 레몬청을 담그고, 메뉴판까지 만드는 등 기획부터 준비와 진행을 모두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청소년들과의 책임감으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 한켠에 존재하는 선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달그락이라는 공간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 (063-465-8871, 후원직통전화(070-7726-9377) (담당: 최미나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달그락달그락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 사회참여, 공유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은 아래 달그락달그락 후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이나 사진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및 방문 해주세요.

메일 jbyar@daum.net 팩스 063-466-8871
문의 063-465-887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동참하는 후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핸드폰
우편수령여부 ☐ 우편 ☐ 이메일 ☐ 필요없음	이메일 @
주소	
추천인	후원신청 이유
기부금 영수증 ☐ 네 ☐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법인세법시행령 제 155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기부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 월 5만원 ☐ 월 3만원 ☐ 월 1만원 ☐ 기타()
결제방법 ☐ CMS(매월자동인출) ☐ 카드결제
납부정보
은행명(카드사) 계좌번호(카드번호, 유효연월)
예금주 성명 정기후원일 ☐ 10일 ☐ 25일
예금주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은 필수입니다.

라대곤 소설집 '퍼즐'

환 각

출퇴근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새벽이고 밤중이고 부르면 달려 나갔다. 주인 박 사장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 바로 옆집에 배달할 국수 한 다발까지 병구를 불러냈다. 다음날 배달해도 될 밀가루 한 포대도 곤하게 잠자는 사람을 한밤중에 깨워서 다녀오라고 하는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었다. 뿐만 아니다. 가내야마라고는 대우해줄 때 부르는 이름이고 보통은 쪽발이 새끼로 불러대면서 도시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 한자리에서 밥을 먹지도 않으려고 했다. 해방 된지가 바로 었그제고 보면 일본이 밍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학벌이고 경력이고 내 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정치를 한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 무렵은 정치자금이라고 몇 푼주면 배급같이 나누어주던 지역정당 부위원장 자리였다. 그것도 수십 명이나 되는 부위원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닐 때만해도 장사를 해먹으려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말투까지 바뀌었다. 조찬이 어땠고 중식이 어땠고 하면서 쫓아다니더니 자기가 무슨 거물이나 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고 아예 시의원을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실력 있는 중앙당 간부와 선이 닿았다는 것이다.

지역정당의 노랑 옷만 입고 나오면 허수아비도 당선이 되는 것이 이 지역 정서이고 보면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지방의원 한자리쯤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일진데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중앙위원의 줄을 잡았으니 허풍으로만 들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가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병구의 일만 늘어났다. 말 타면 건 마잡히고 싶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현 포니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주어야 했다. 무슨 거물이라고 커다란 등치로 좁은 포니 뒷자리에 허리를 걸치고 앉아 거들먹거리는 꼬락서니라니 파출소장자리라도 한자리 꿰찼으면 여러 사람 죽일 인간이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고 했다. 그만 두자. 결심을 했지만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 시장을 떠 날수가 없었다. 병구는 무궁화의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유곽시장을 떠 날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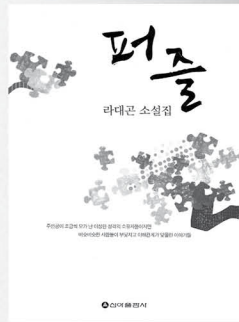
그것은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가슴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풀자면 해방이 되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날 밤 수양어머니였던 일본 포주 에이꼬의 애인 가내야마 이찌로상이 커다란 상자를 끄덕대면서 끌고 나타났다. 병구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인사를 하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자 머리를 맞대고 수군대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빨리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엉 겹 곁에 쫓겨나왔지만 어린 마음에도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빛이 흘러나오는 판자벽 공이 사이로 안을 훑쳐보았다. 가내야마 이찌로가 상자를 열고 있었다. 순간 병구는 비명을 지를 뻔 했다. 눈이 부셨다.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무궁화.”

가내야마 이찌로가 에이꼬 귀에 대고 속삭기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다. 그날 밤 병구는 눈부신 금빛이 어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에 또 기웃거리 보았지만 가내야마 이찌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에이꼬가 병구를 불러서 말을 했다.

“너는 내 수양아들이다. 내가 잠시 이곳을 떠나지



만 곧 돌아온다. 그래서 물건도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이니 네가 잘 지키고 있어라.”

가벼운 가방하나를 달랑 들고 떠나는 에이꼬를 보면서 병구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곳에 놓고 간다는 물건이 그날 밤 보았던 금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덩이를 찾아야 한다. 에이꼬가 떠나기가 무섭게 집안을 뒤져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거운 금덩이를 멀리서 끌고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가까운 곳 어디쯤에 숨겨 두었을 것이다.

“무궁화.”

분명 금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무궁화는 금괴와 관련이 있는 암호 일 것이다. 암호만 풀 수 있다면 금덩이를 찾아 시장을 다 사고도 남을 것이다. 이래저래 쉽게 시장을 떠 날수 없는 병구의 비밀을 알리가 없는 박 사장은 구박해도 갈 곳이 없는 병구로 인정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나섰다.

억지로 눌러앉아 있는 병구지만 박사장이 공천을 받겠다고 서울을 출랑대며 쫓아다니느라고 가게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보면 더러워도 조금 더 견디어 보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에 나타난 박사장이 또 시비를 걸었다. 용돈을 챙기려고 하는 수작이었다.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 잠시 시비를 하고나면 금고에서 돈을 뽑아들고 그 길로 달려 나가서 며칠씩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때문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사모님 오경자 여사가 가게를 맡았다. 다행이었다. 가게 일을 아는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병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분간은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만둘 마음을 접고 장부정리부터 거래처 수금까지 앞장서서 열심히 뛰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오경자 여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병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전화위복이 이런 것인가? 대부분의 가게 일을

맡겨주었다. 간사 한 것이 사람이다. 마음에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가면서 일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는데 호사다마라고 이번에는 갑자기 오경자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다. 다시 박 사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개 버릇 남 주지 못한다고 이번에는 밀가루 선수금까지 걷어다가 들고 나가고 있었다. 누워있는 오경자 여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박 사장 대신 병구에게 가게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직책만 사장이 되었을 뿐 월급이나 대우는 달라진 게 없었다. 일판이 좀 묘하게 되었지만 박 사장도 이제 가게 돈을 축내려면 어쩔 수 없이 병구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병구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다. 박 사장에게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고 용돈도 빼주었다. 잔돈 뺏어가는 재미로 박 사장도 조금씩 달라지는가 싶었다. 한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어렵게 돌아가던 자금이 확 풀려버린 것이다.

병구가 가게를 잘 운영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중장부 덕분이었다. 공장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값을 외상으로 미루고 납품하는 양조장에는 단가를 낮추어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소위 말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쥐새끼가 제 꼬리 잘라먹는 줄도 모르고 한 푼씩 쥐어주는 용돈에 눈이 뒤집힌 박 사장은 불만이 없었다. 손바닥만 한 밀가루 가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마구잡이로 끊어놓은 수표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다. 부도가 난 만복상회야 망해버렸지만 병구는 양손에 떡을 쥐게 된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박 사장과 형이야 아우야 하고 살던 사람들이다. 한데 그 사람들도 언제였느냐는 듯이 병구 옆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오경자 여사까지 이 세상에 없고 보면 누구라 만복상회를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병구 같은 놈을 잡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귀신도 낮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라고 뼈죽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_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입니다. jin0101@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앙상블리에티와 떠나는 교과서 음악여행 - 유럽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트레블 클라리넷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e reve 제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썸머 페스티벌(아외광장) 군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썸머 페스티벌(아외광장) 군산예술의전당	
01	02	03	04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공연 - 영화음악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ac On Screen-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앙상블 APM 제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클래식 향연 스토리텔링 영재들의 꿈 김준 피아노 독주회 프로젝트 스몰 몬스터 : 이상한 나라의 달리스 - 대중음악사 엮보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앙방언 EVOLUTION 2016 군산예술의전당	
07	08	09	10	11	12	
2016 해설이 있는 프 로아트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비타민' - 전주 한마음호른앙상블 제 21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박혜진 정세현과 함께 하는 통일 토크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피아노다이러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21회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카듀오 정기연주회 [연극] 손숙의 그 여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여름방학특집 어린이 국악뮤지컬 군산예술의전당	
14	15	16	17	18	19	
전북 어린이국악관련 악단 정기연주회 전북비올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두비두비 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제2회 시립합창단 브라보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스페셜 공연 '라 프리마돈나' 군산예술의전당	아트스테이지 소리 : ep50 안녕하십니까 뮤직에세이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1	22	23	24	25	26	27
소리어스 일곱번째 편지 - 춘향, 드레스를 입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 시포니에타와 함께 하는 재즈페스티벌 군산예술의전당	해설이 있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햇살이 그대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가야금연주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8	29	30	31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침선장 임순옥 공개행사 2016-08-22 ~ 2016-08-24	
새나전 2016-08-21 ~ 2016-08-25	제26회 월명서화학회전 2016-08-20 ~ 2016-08-25
C&C 미술학원 작품 전시회 2016-08-16 ~ 2016-08-20	제10회 군산구상작가회 정기전 2016-08-11 ~ 2016-08-17
개관3주년기념 전국야외조각전 2016-04-01 ~ 2016-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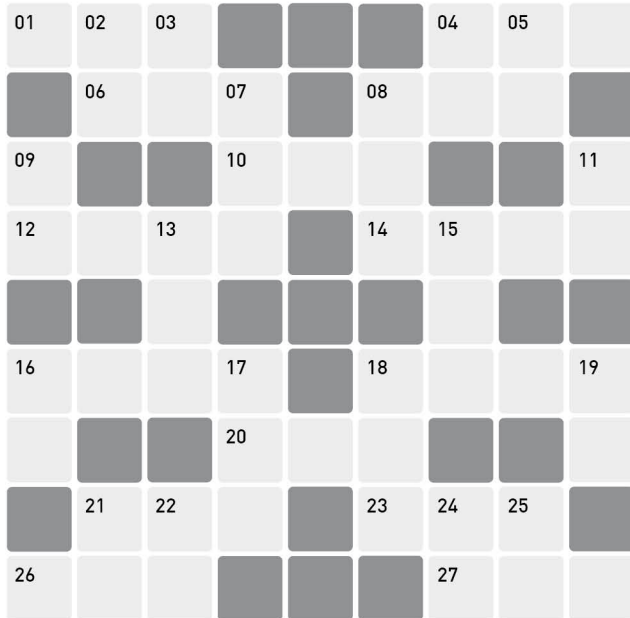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어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신광모자지원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61



<제60호 퍼즐 정답>

	공	양	미		을	숙	도	
친	박		꾸	러	미		벽	안
정		수	라		사	적		무
	노	다	지		변	성	기	
골	무						중	개
	현	수	교		김	매	기	
그		저	리		영	상		가
루	비		문	주	란		이	웃
	천	수	답		법	랑	질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in0101@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열쇠

- 01 이성을 그리워하는데서 생기는 병.
- 04 은하수를 뜻하는 옛말.
- 06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 약 60만평으로 조성된 인공 섬 이름.
- 08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10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 12 바느질 도구를 담은 그릇.
- 14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룸.
- 16 대한민국 현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
- 18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함을 이르는 말.
- 20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21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
- 23 오랜 기간 지속 되는 전쟁.
- 26 누워서 책을 볼 때 책을 받쳐 놓을 수 있게 만든 책상.
- 27 군산시 금광동에 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 세로 열쇠

- 02 물가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 03 나라 안에서 싸움질하는 난리.
- 04 용(龍)의 옛말.
- 05 페루의 수도.
- 07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진 과실.
- 08 책상다리를 하고 앉음. 스님은 ○○○를 들고 참선을 시작했다.
- 09 자그마한 밥상.
- 11 새색시가 이마에 연지로 찍는 붉은 점.
- 13 고등어의 새끼.
- 15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 16 구기(球技)에서 골이나 바스켓에 공을 차거나 던져서 넣는 일.
- 17 물건을 넣는 상자나 갑.
- 18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이나 감상 따위를 적는 책.
- 19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뜻의 신조어로서, 대개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거나 외모가 환철한 사람을 볼 때 쓴다.
- 21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뜨기 전까지의 동안.
- 22 다락(樓)의 위. 야구에서 각 베이스의 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 24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행동. ○○성. ○○력.
- 25 온 나라.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상임
대표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삼영종합 SamYeong Total 중장비학원 Heavy Equipment Academy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줄걸이 및 신호(Rigger)

063-453-4817~8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6 삼영종합중장비학원